박물관 사람들

50th Anniversary of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국립중앙박물관회 발족 50주년 특집

2024년 상반기

84호

국립중앙박물관회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2024년 84호

84호 표지는
박물관회 발족위원들의 얼굴을 담았습니다.

(상단 왼쪽부터)
홍종인 김리나 김상옥 김세중 김수근 김원룡 김응현 윤장섭 윤무병 한무숙 김철준
이홍우 예용해 전성우 최규용 유준상 최영희 천경자 유강렬 민병도 박일훈
박경원 정영호 진홍섭 이기백 이구열 박래현 최순우 홍윤식 황수영 윤경열 안휘준
반영환 변종하 성경린 신찬균 홍사준 이항성 이경성 이겸노 박성삼 이대원 천병옥

창간일	2003. 3. 15.
발행일	2024. 5. 1.
발행처	국립중앙박물관회
총괄	이재범
기획,편집,디자인	김 온
제작	동방문화
문의	02)2077-9790/ fnmk1974@fnmk.org

특집

04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장 인사말
05 박물관회 발족 50주년

기획 <기증의 역사>

08 국립중앙박물관회 1호 기증품, 잊혀진 <천전리 암각화>
12 나눔의 가치
15 삶, 살아감, 살아남음

박물관회에서는

박물관강좌 소개
18 사시사철 답사하는 마음으로 70개의 사찰을 바라보다
20 작가들의 삶에서 사람 사는 이야기를 발견하다
22 특설강좌 3기, 5기 수료생을 만나다

답사기
24 1975년 8월 10일, 경주고적답사
25 서울 근교의 보물을 찾아서: 남양주와 하남 지역 답사기

회원의 글
28 정기답사 참여회원 소감문
29 기원전후 남인도의 천불 이야기

박물관에서

32 이천시립월전미술관《우아한 돌Elegant Stones》展

소재구의 도시 이야기

36 동해안의 대 고을. 강릉

학술

40 2023년 학술상 금관상 수상
<한국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당문서가 부착된 삿자리의 복원>
44 2023년 학술상 은관상 수상
<조선후기 선원전 북벽 모란도 고찰>

박물관회 소식

46 하반기 박물관강좌 수강생 모집
48 정기답사 일정, 답사기 공모
49 기부회원 소개

『박물관사람들』
온라인으로 보기

안녕하십니까.
국립중앙박물관회 16대 회장
박은관 입니다.

봄의 한 복판..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회는 올해, 발족 50주년을 맞습니다..
'새로운 과거, 오래된 미래'라는 주제로 뜻을 모았습니다.
50년간 이어온 사업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조명, 개선하고..
앞으로 이어갈 우리 회의 좋은 전통과 유산은 지켜나갈 생각입니다.

박물관회는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한 전국의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박물관을 후원하는 사단법인입니다.
1974년 최순우 前국립중앙박물관 관장님및 58인의 사회 각계 리더들이 모여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문화재에 대한 애호 정신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24점의 문화재와 1,000여권의 해외서적, 학술지를 기증하였고..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실 개편, 학예 인력의 학술 조사와 국외연수, 학술 연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의 문화예술 소양 향상을 위한 박물관강좌를 40여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국립박물관 관람객이 1,000만명 시대입니다(중앙국립박물관 418만명, 지방 국립박물관 629만명)
지난 50년 동안, 박물관회도 박물관 후원 사업, YFM의 활발한 활동등 많은 발전과 성장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회의 정체성과 초심을 다시 돌아보며, 박물관회 일반회원, 박물관 직원, 일반 관람객들의 생각과 눈높이에 보다 더 집중하려 합니다.

회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사랑으로 박물관회는 박물관과 함께 커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박물관회가 국립중앙박물관에 큰 힘이 되고, 더욱 많은 대중들이 우리 문화를 즐기고 아낄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모습으로 개편한 회지『박물관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경험과 지혜들을 모으고, 나누는 좋은 창구가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회 제 16대 회장
박 은 관

'새로운 과거
오래된 미래'

2024년,
국립중앙박물관회는
발족 50주년을
맞습니다.

博物館會 發足

지난 8월26일 國立中央博物館 新築移轉 2週年 記念「佛敎舞踊의밤」行事를 마치고 茶果會를가진 자리에서 博物館同好人 洪鍾仁氏外 75人이 中心이되어 平素부터 構想하여오던「博物館會」를 조직할것을 만장일치로 可決하고 發起人中에서 金文治, 金壽根, 金철준, 朴星三, 白承吉, 芮庸海, 李大源, 樂弘燮, 崔水膳, 洪鍾仁, 黃壽水등 11人의 發起準備委員을 選定하여 그조직을 委任하였으며 그후 9月9日 發起準備委員들이 모여 博物館會規約을 審議決定, 任員選出, 會員권유모집, 事業計劃등을 論議하므로서 博物館會發足을 보게되었다。
博物館會는 博物館愛好家및 寫志家들로 構成하여 博物館事業中에서 官이 직접할수없는 分野를 外廓에서 도움고 市民스스로가 博物館事業發展에대한 參與意識을 가짐으로써 有形無形의 힘이 되도록 하자는 목적이다。博物館會 組織에는 一般會員, 特別會員, 家族會員, 명예회원, 學生會員등이 있으며 그 規約과 任員및 發起人 名單은 다음과같다。

博物館會 規約

第一章 總則
第1條(名稱) 本會는 博物館會라부른다。
第2條(事務所) 本會의 事務所는 서울特別市 鍾路區 世宗路1番地 國立中央博物館 안에 둔다。
第3條(目的) 本會는 博物館事業의 發展을 도움고 會員서로의 親睦과 愛國文化에 대한 知識을 넓힌다。
第4條(事業) 本會는 다음과 같은 事業을 한다。
1、博物館의 特別展示나 그 것을 도움는 行事 또는 博物館事業의 社會敎育的 普及 啓蒙을 爲한일。2、展示 遺物의 購入 寄贈。3、會員 서로의 親睦과 敎養의 向上을 爲한 일。4、其他 博物館 事業 發展에 도움이 되는일。
第5條 本會는 會費와 寄附金으로 運營한다。
本會의 豫算은 博物館의 運營費나 管理費로 쓸 수 없다。
第二章 會員
第6條(會員 및 資格) ①本會 會員·家族會員·特別會員·學生會員·名譽會員을두며 會員은 1人以上 推薦으로 理事會의 認准을 받아야 하며, 다음의 會費를 負擔한다。
1、會員은 年會費 3,000원 2、家族會員은 年會費 1,000원以上 3、特別會員은 一時 會費 10,000,000원以上 4、學生會員은 年會費 2,000원 ②前職 國立中央博物館 0,0 0,0 長 10年以上 勤務한 博物館長이 推薦한 분은 特別會員이 되며 博物館事業에 크게 寄與한 분으로 理事會에서 推薦한 분은 ③名譽會員은 博物館 發展과 博物館 事業 發展에 크게 寄與한 분으로 理事會에서 推薦한 분은 特別會員이 된다。
第7條(會員의 權利) 本會員은 다음과같은 特典을 누린다。1、博物館 行事(特別展示, 講座, 音樂會, 映畫, 演奏, 舞踊, 古蹟踏査)에 招待 또는 參加。2、博物館 圖書室, 講堂 및 博物館 資料의 利用 및 資料 等 博物館 賣店에서의 減價。4、博物館 新聞 및 博物館 出版物 配布。
第8條(會員의 義務) 會員은 다음 各號의 義務를 지킨다。1、規約의 준수。2、가 總會및 理事會의 決議事項 履行。3、會費 및 其他 賠償부담금의 納付。
第9조(納付會員의 脫退) 會員이 納付한 會費를 喪失한다。
第10條(懲戒) 會員이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事由가 發生할 때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會員을 除名할 수 있다。1、第8條의 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한 때。2、本會의 事業을 妨害한 때。3、本會의 名譽를 훼손하거나 害를 끼친 때。
第三章 任員
第11條(任員) 本會에 다음의 任員을 둔다。1、會長 1人 2、副會長 1人 3、理事 12人以內 4、監事 2人 5、幹事 1人
第12條(選出) 1、會長·副會長은 理事會에서 選出한다。2、理事는 總會 및 博物館長은 當然職 理事로 選任한다。3、國立中央博物館 管理課 課長은 當然職 幹事로 選任된다。4、國立中央博物館 管理課 課長은 當然職 幹事로 選任된다。
第13條(任期) 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한다。(但 連任할수있다。)
第14條(會長)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會務를 통괄한다。
第15條(職務遂行) 副會長이 會長의 職務를 보좌할때는 事故있을때는 代行한다。
第16條(理事) 理事는 理事會를 通하여 本會의 業務에 關한 事項을 審議하며 理事會의 決議 또는 會長으로 부터 委任된 事項을 處理한다。
第17條(監事) 監事는 本會의 財政 및 其他 運營에 關한 事項을 監査한다。
第四章 總會
第18條(構成) 總會는 本會의 最高 議決機關이며 會員으로 構成한다。
第19條(召集) 1、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구분한다。2、定期總會는 年1回 會長이 召集하고 議長은 理事會의 要求가 있을 때 會長이 召集하고 議長이 召集한다。3、臨時總會는 會長이 召集하고 議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때나 理事 5人 以上의 要求가 있을때에 會長이 召集하고 議長이 된다。
第20條(부의사항) 總會에 부의는 事項은 다음과 같다。1、事業計劃에 關한 事項。2、豫算과 決算。3、規約의 變更에 關한 事項。4、其他 重要한 事項。3、階級 및 名譽 會員의 推薦 및 決定。4、其他 必要한 事項。
第21條(定足數) 總會는 會員 50人 以上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五章 理事會
第22條(構成) 理事會는 任員으로 構成한다。
第23條(召集) 理事會는 會長이 召集하고 議長이 된다。
第24條(부의사항) 理事會의 부의사항은 다음과 같다。1、總會에서 決議된 事項의 組織 및 運營에 關한 事項。2、事務局의 運營에 關한 事項。3、階級 및 名譽 會員의 推薦 및 決定。4、其他 必要한 事項。
第25條(定足數) 理事會는 在籍構成員 過半數 以上의 出席으로 開催하고 出席人員 過半數 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六章 事務局
第26條(設置) 會長의 指示를 받아 本會의 業務를 處理하기 爲하여 事務局을 둔다。局長은 理事會의 認准을 받아 任命한다。2、事務局 1人과 職員 약干名을 둘수있다。
第27條(職員) 事務局에 局長은 會長의 指示를 받아 會務를 處理한다。3、事務局의 職員은 會長의 任命한다。4、事務局長의 指示를 받아 事務局의 事務를 處理한다。
第28條(事務局長) 1、事務局長은 理事會의 決議 및 會長의 任命한다。2、事務局의 組織 및 運營에 關한 事項。3、事務局의 職員은 會長의 任命한다。
第七章 補則
第29條(解散) 本會를 解散하고자 할 때에는 總會의 議決을 거쳐 文化公報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第30條(殘餘財産의 歸屬) 本會가 解散할 때에는 그 殘餘財産은 國立中央博物館에 歸屬된다。
第31條(規則) 다음 各號의 事項에 對하여는 理事會의 決議를 거쳐 本會의 規則으로 定한다。1、支部의 組織 및 運營에 關한 事項。2、事務局의 運營에 關한 事項。3、會議의 召集 및 運營에 關한 事項。4、其他 이 規約과 本會 運營에 必要한 事項。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신문 43호(1974년 9월 1일 발행)에 실린 박물관회 발족 기사

박물관회는 국립중앙박물관을 후원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회는 국립중앙박물관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1974년 설립하였습니다. 박물관 회원 제도를 마련해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기부, 기증문화를 확산하고, 박물관의 전시·연구·교육·문화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박물관과 함께 유물기증·기획전시·조사연구·박물관교육·자원봉사자 육성 등 우리 유물을 알리고 보존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발족 50주년인 현재까지 박물관회에 대한 관심과 후원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박물관으로 도약하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위상에 걸맞는 후원회이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박물관 후원회로 발돋움하였습니다. 국내·외 박물관 후원단체와 연합하여 문화유산 보존과 후원자 증대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회의 후원활동은 기증사업, 학술사업, 교육사업, YFM, 자원봉사 등으로, 기증사업에서 문화재 기증은 1989년 청자벼루(중국 육조시대 유물)로 시작되어 15세기 백자 청화 모란넝쿨무늬 항아리, 19세기 자수화조 8폭 병풍과 화각함, 서예가 오세창의 상형고문, 고려시대 동제불감 및 은제금도금관세음보살좌상 등 2024년까지 총 24점의 문화재를 중앙박물관에 기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전리 암각화 모형, 중앙박물관의 청자정과 상설전시실 일부, 사유의 방 등 시설물 개선사업에도 후원하였습니다.

박물관의 연구기능 활성화를 위해 도서실에는 1900년대 후반 당시로서는 구하기 힘들었던 해외 역사·미술사·고고학 관련 서적과 전문분야 학술지 1,000여권을 구입, 기증하였고, 1979년부터 2004년까지 중앙박물관과 소속 박물관 학예사들의 논문에 대해 학술연구비를 후원하였습니다. 학예사들의 다양한 경험과 연구를 위해 국내외 조사연구를 지원하는 국외연수 프로그램을 시행하였고, 학술상 수여를 통해 박물관과 학예사들의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사업으로는 1981년, 국립중앙박물관의 '박물관강좌'를 이관받아 역사, 미술사, 사상사, 건축사 등 다양한 인문학적 주제의 강좌를 개설하여 올해 47기 수강생들을 모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설강좌' 단일 강좌로 시작한 박물관강좌는 연구강좌, 테마강좌, 특강 등 여러 강좌로 구분, 발전하여 학술적 깊이를 더하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회 젊은 친구들(Young Friends of the Museum)' YFM은 국립중앙박물관을 후원하는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젊은 경영인들이 중심이 되어 2008년부터 활발히 활동하는 문화 후원 친목 모임으로, 박물관 기부문화를 이끄는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회는 앞으로도 국립중앙박물관의 발전과 대중의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문화재는 온 국민의 것, 박물관을 보호 · 육성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博物館會회장 洪鍾仁씨

"文化財는 모든 國民의 것 愛護精神 昂揚이 급선무"

인터뷰

1974년 최순우 前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을 중심으로 여러 문화예술계, 학계,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 발족한 국립중앙박물관회는, 국가의 박물관 사업을 자발적으로 돕고, 시민들 스스로 박물관 사업에 대한 참여의식을 지니게 하여 박물관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설립의 목표였습니다.
같은 해 8월 26일에 열린 박물관회 발기인 대회에서 준비위원으로 홍종인 박물관회 초대 회장이자 조선일보 회장, 김재원 초대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세중 국립현대미술관장, 화가 천경자와 박래현, 건축가 김수근, 김원룡 서울대 교수, 진홍섭 이화여대 교수, 민병도 한국은행 총재 등 총 58명의 발기인들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달인 9월, 사단법인으로 법적절차를 거쳐 정식 발족하였습니다.

홍종인 초대 박물관회 회장은 당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박물관의 유물은 국가의 책임 아래 수집·보관하고 연구·전시하지만 이것을 국가나 학자만의 책임이 아니고 온 국민의 것으로서 박물관을 보호·육성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의 인식을 전환시키는데 박물관회의 설립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물관회 회장 홍종인씨, 문화재는 모든 국민의 것. 애호정신 양양이 급선무", <경향신문>, 1974. 10. 29.]

1974년 8월 26일, 58인의 박물관회 준비위원

사회각계인사들이 모인 1974년 8월 26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박물관회는 시작되었습니다.
그 첫걸음에 함께한 58인의 박물관회 준비위원들을 소개합니다.

권태선(權泰宣)	김응현(金膺顯)	백승길(白承吉)	윤무병(尹武炳)	이종석(李宗碩)	최 구(崔 鳩)
김 윤(金 潤)	김재원(金載元)	변종하(卞宗夏)	윤장섭(尹章燮)	이준우(李俊佑)	최규용(崔圭用)
김리나(金理那)	김철준(金철埈)	성경린(成慶麟)	이겸노(李謙魯)	이항성(李恒星)	최영희(崔永禧)
김문호(金文浩)	민병도(閔丙燾)	신찬균(申瓚均)	이경성(李慶成)	이흥우(李興雨)	한무숙(韓戊淑)
김상옥(金相沃)	박경원(朴敬源)	안재준(安在準)	이구열(李龜烈)	전성우(全晟雨)	홍사준(洪思俊)
김세중(金世中)	박래현(朴崍賢)	안휘준(安輝濬)	이기백(李基白)	정영복(鄭泳福)	홍윤식(洪潤植)
김수근(金壽根)	박상헌(朴商憲)	예용해(芮庸海)	이대원(李大源)	정영호(鄭永鎬)	홍종인(洪鍾仁)
김영상(金永上)	박성삼(朴星三)	유강렬(劉庚烈)	이동호(李坰鎬)	진홍섭(秦弘燮)	황수영(黃壽永)
김원룡(金元龍)	박일훈(朴日薰)	유준상(劉俊相)	이수영(李壽榮)	천경자(千鏡子)	황종예(黃鍾禮)
김유선(金裕善)	반영환(潘永煥)	윤경열(尹京烈)	이종복(李宗馥)		

천전리 암각화 복제품

국립중앙박물관회 1호 기증품, 잊혀진 <천전리 암각화>

윤인식 국립중앙박물관회

2024년은 국립중앙박물관회가 발족한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국립중앙박물관회의 50년 역사를 정리하기 위해 옛 문서들을 하나하나 살피고 있다. 문서 중에는 이미 알고 있던 사실들도 있고, 새롭게 밝혀진 내용도 있다. 1985년 국립중앙박물관회(당시에는 한국박물관회가 정식 명칭이다)의 첫 번째 유물 기증(사실은 복제품)이지만 철저히 잊혔던 <천전리 암각화> 복제품의 제작과 관련된 문서들도 찾을 수 있었다. 이 글에서는 <천전리 암각화> 복제품이 어떤 경로로 제작되어,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되고,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남겨진 문서와 자료들을 토대로 풀어보고자 한다.

1981년 제5공화국이 출범하고 다음 해인 1982년 종로에 밀집해 있던 정부기관들은 경기도 과천에 새롭게 조성된 제2정부청사로 이전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정부청사로 사용 중이던 조선총독부 건물은 사실상 그 쓰임새가 종료되었다. 건물을 철거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때만 해도 박물관을 총독부 건물로 이전한다는 것은 여러 의견 중의 하나일 뿐이었다. 그 해 5월, <동원 이홍근 기증 유물 특별전>에 참석한 대통령은 처음으로 조선총독부 건물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용하자는 제안을 했다. 사실 대통령의 제안은 곧 지상명령처럼 떠받들어졌고, 이로 인해 국립중앙박물관이 총독부 건물로 이전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었으며, 모든 행정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1983년 3월 2일 각계각층의 인사로 '국립중앙박물관 이전에 따른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2주 후에는 국무회의에서 조선총독부 건물을 박물관으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다음 해 6월에 국립중앙박물관의 개축 기공식을 거행했으며, 3년 후인 1986년 8월 21일에 국립중앙박물관은 조선총독부 건물로 이전하였다.[1]

1985년 7월 25일, 석 달에 한 번씩 열리는 박물관회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 말미에 참석자 중 누군가가 국립중앙박물관이 이전하는데 박물관회가 기념비적인 유물을 구입하여 기증하자는 건의를 하였다. 그러나 당시 박물관회는 적은 예산으로 한해 한해 겨우겨우 운영되던 작은 단체였고, 유물을 구입 할 여력도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심하던 중, 독립기념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김위영 이사가 유물을 기증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차라리 유물을 복제하여 기증하자고 하였다. 그러면서 1986년 개관을 앞둔 독립기념관이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를 대표하는 전시물로 <천전리 암각화> 복제를 추진하고 있으니 이걸 활용하자고 하였다. 이에 김영상 부회장은 독립기념관에서 이미 제작하고 있는 <천전리 암각화> 복제물을 우리가 함께 제작하게 된다면 이미 만들어 둔 자재(거푸집)를 활용할 수 있으니 제작단가도 많이 낮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2]

천전리 암각화 거푸집 세척작업

천전리 암각화 복제 성형작업

천전리 암각화 세부

그렇게 시작된 박물관회의 <천전리 암각화> 복제 사업은 8월 27일 독립기념관 전시물 제작 등록업체였던 삼협공예주식회사와 계약을 했다.[3]

실물 크기와 같은 가로 약 9.5미터, 세로 2.7미터로 제작하며, 제작기간은 9월 1일부터 동년 11월 30일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제작방법은 <천전리 암각화> 유적지에서 거푸집을 다섯 조각으로 나누어 실리콘으로 제작한 후, 조각별로 다시 조립하여 석분과 안료를 섞은 FRP(Fiber Reinforced Plastic, 섬유 강화 플라스틱) 방식으로 2.3m/m씩 몇 차례 적층하여 약 10m/m 정도로 성형한 후 아크릴로 최대한 실제 유물과 같은 채색을 하기로 했다.[4] 유적에 실리콘을 바른다는 게 요즘은 상상도 못 할 일이지만 당시에는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한 일이었다.

삼협공예주식회사가 제시한 제작비는 660만 원이었는데, 타업체가 제출한 견적서를 살펴보니 제작비용이 14,542,000원이었다. 아마도 이 업체는 거푸집부터 채색작업까지 모든 공정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니 큰 금액의 견적을 제출한 모양이다. 어쨌든 김영상 부회장의 생각처럼 독립기념관보다 훨씬 저렴하게 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독립기념관은 큰돈을 들여 세상에 하나뿐인 복제품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을 텐데 박물관회가 요즘 흔한 말로 공동구매가로 또 다른 복제품을 만들어 버린 것이었다.

이제 박물관회는 660만 원이라는 돈만 준비하면 되었다. 하지만 박물관회에는 그렇게 큰돈이 없었다.

10월 8일 개최된 임시 평의원회에서 <천전리 암각화> 복제품 제작을 위한 기금을 임원과 회원들을 통해 모금하기로 결정했다.[5]

전체 제작비 660만 원 중 220만 원은 박물관회 임원들이 모금하여 부담하고 특설강좌를 수료한 수강생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학습회(스터디그룹)에서 나머지를 부담하게 하였다. 좀 더 조직적이고 원활하게 모금운동을 펼치기 위해 '천전리 암각화 복제 제작비 모금 소위원회'도 만들었다. 김영상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권태선 이사가 부위원장을 맡았다. 그리고 박우회(고병복), 전통문화학습회(최신자), 박연회(유상옥), 온고회(박선영), 팔우회(이종순), 향고회(김위영)와 같은 6개 학습회의 회장을 위원으로 위촉하였다.[6]

1) 안승모 블로그(https://blog.naver.com/somabba/), 2023
2) 문서번호 1985-02-16-0067
3) 문서번호 1985-02-16-0049
4) 문서번호 1986-02-17-0054
5) 문서번호 1985-02-16-0052
6) 문서번호 1985-02-16-0049

기 금 모 금 안 내

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박물관회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1986년 8월에 구중앙청건물로 이전함이 있어, 본회에서는 울주군 천전리 암각화를 복제모형(가로 9.5㎜, 세로2.7㎜)으로 제작하여 전시유물로 기증하고자 평의원회에서 결의 하였읍니다. 암각화 제작비 육백만원중 1/3은 임원, 그리고 2/3은 회원의 부담으로 기금을 조성하기로 하였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지로입금서를 동봉하오니 가까운 은행의 99번 지로창구에 원하시는 금액을 적으시고 입금하시면 되겠읍니다.

문의전화 : 730 - 7093

1985. 10.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회장 김 일 환

기금 모금 안내

1. 천전리 암각화 제작 기금 현황

(단위 : 원)

구 분	성 명	금 액	비 고
회 장	김 ○ 환	100,000	
부 회 장	김 ○ 상	100,000	
"	최 ○ 구	100,000	
이 사	고 ○ 림	50,000	
"	권 ○ 선	20,000	
"	김 ○ 원	50,000	
"	박 ○ 삼	100,000	
"	박 ○ 완	50,000	
"	정 ○ 자	100,000	
감 사	정 ○ 숙	30,000	
평 의 원	김 ○ 춘	10,000	
"	김 ○ 진	100,000	
"	박 ○ 자	50,000	
"	유 ○ 옥	50,000	
"	이 ○ 희	10,000	
"	천 ○ 옥	20,000	
익명의 독지가		1,000,000	
박우회		200,000	
전통문화학습회		400,000	
박연회		800,000	
온고회		1,200,000	
팔우회		1,500,000	
금관회		600,000	

천전리 암각화 제작 기금 모금 현황

모금기간은 12월 10일까지여서 그리 넉넉한 시간은 아니었기에, 전체 학습회 수강생들에게 우편으로 <천전리 암각화> 복제물 제작의 취지를 설명하는 안내문과 지로입금서를 보내 제작비 모금을 했다.[7] 당시 학습회에서 공부하던 회원은 470명이었다.[8] 이렇게 모금된 돈은 567만 원이었다. 이중 임원이 낸 금액은 97만 원이고, 6개의 학습회(박우회 20만 원, 전통문화학습회 40만 원, 박연회 80만 원, 온고회 120만 원, 팔우회 150만 원, 금관회[9] 60만 원)는 470만 원이었다.[10] 1985년 한해동안 모은 후원금이 5,739,280원이었는데, 이중 대부분을 <천전리 암각화> 복제를 위한 모금액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고로 1984년 한해동안 모금된 후원금이 100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많은 금액이 모금되었는지 알 수 있다.

박물관회에서 최선을 다해 모은 제작비는 여전히 100여 만원이 부족했다. 하지만 간절함이 절정에 다다를 때 실로 믿기지 않는 경이로운 순간이 나타나기도 하지 않는가. <천전리 암각화> 복제 제작 기금에서도 이런 경이로운 순간이 있었다. 어느 날 홀연히 익명의 독지가가 나타나 100만 원을 기부했다.[11] 믿기지 않지만 남겨진 문서에 기록된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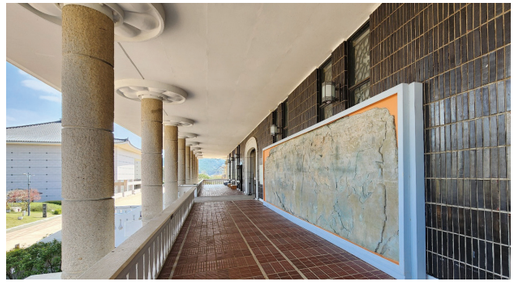
그렇게 기적 같은 일로 남기고 싶었지만 문서를 뒤적이다 조금은 허무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1985년 박물관회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지원금을 신청 했다. 지금 남아 있는 문서명은 「암각화 모형제작 지원사업 결과보고」이고 결과적으로 지원금 1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12]

7) 문서번호 1985-02-16-0055
8) 1985년 사업실적서에 박우회 20명, 향고회 10명, 전통문화학습회 40명, 박연회 80명 온고회 120명, 팔우회 200명이 학습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9) 처음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향고회가 기록되어 있었지만(문서번호 1985-02-16-0049), 1986년 결산자료를 보면 향고회 대신 금관회가 기록되어 있다(문서번호 1986-02-17-0030). 금관회는 1985년 특설강좌 9기생이 결성한 학습회이며 당시 10여 명이 활동하던 향고회는 금관회에 흡수된 것으로 추측된다.
10) 문서번호 1986-02-17-0030
11) 문서번호 1986-02-17-0030
12) 문서번호 1986-02-17-0054

그런데 1986년 2월 18일 개최된 정기 이사회 및 평의원회에서 김영상 부회장이 "85년도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검토하였는데, 유물 구입에 있어서 당초 600만 원을 의결하였지만 부가세 10%를 더한 660만 원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찬조금 항목의 50만 원을, 익명의 독지가가 헌금한 100만 원을 더하여 150만 원으로 하였으면 합니다."라고 발언을 하였다. 이에 김위영 이사가 평의원회의에 부의할 것을 제안하였다.[13] 같은 날 개최된 평의원회의에서는 김영상 부회장이 다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지원금을 익명의 독지가가 헌금한 것으로 처리하자고 발언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모든 평의원이 동의하였고 김일환 회장은 이런 제안을 허락하였다.[14]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는 문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회의 말미에 한창기 감사가 "앞으로는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지원받는 지원금은 성격상 받지 말자."라고 발언을 하였다. 발언 중 성격상 받지 말자는 말은 박물관회의 설립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지만, 전체적인 어조는 회의록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 이외에도 토의 내용 중 '진흥원의 지원금 문제'라고 언급되는 것만 봐도 당시 <천전리 암각화> 복제품 기금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되어 있으며, 지원금 사용에 대한 박물관회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간에 모종의 다툼이 있었고 이 때문에 문화예술진흥원의 지원금을 익명의 독지가가 후원한 것처럼 정정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천전리 암각화> 복제 사업은 1985년 7월 25일 「1985년 제3회 운영위원회 회의록」에서 시작하여, 1986년 7월 25일 「제3회 운영위원회 회의자료」를 끝으로 박물관회 문서에서는 사라진다. 당시 박물관회는 넉넉하지 못한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박물관의 이전을 축하하기 위해 유물을 복제하고 기증한 것일 텐데 어떤 언론사의 기사에도 언급되지 않았고, 심지어 박물관의 시시콜콜한 일들도 모두 기록했던 『박물관신문』에서도 기사 한 줄 찾을 수 없었다. 근래에 이건무 前 국립중앙박물관장과 김재홍(前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국민대 교수에게도 문의를 하였지만, <천전리 암각화> 복제품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하셨다. 아마도 1986년 8월 4일 개관을 열흘 앞둔 독립기념관에 화재가 발생하여 개관이 일 년 여 연기되었고, 나름 같은 복제품이지만 도의적으로 독립기념관이 먼저 공개한 후 나중에 공개하려던 국립중앙박물관 <천전리 암각화> 복제품은 이런 태생적 한계 때문에 박물관 직원들마저도 알지 못할 정도로 조용히 기증되었고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행히 독립기념관의 <천전리 암각화> 복제품은 1987년 개관과 함께,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를 대표하는 유물로, 현재까지 <겨레의 뿌리> 제1전시관에 지금도 전시되어 그 위용을 뽐내고 있다.



국립경주박물관 2층 외벽에 설치된 <천전리 암각화>

1985년 국립중앙박물관회가 기증한 <천전리 암각화> 복제품은 언제 기증되고 새로 이전한 국립중앙박물관의 어디에 설치되었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사라진 줄 알았던 <천전리 암각화> 복제품이 현재 국립경주박물관 2층 외벽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언제 이전되었는지 여기저기 수소문했지만 이 또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아마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용하던 총독부 건물을 철거하면서 또 다시 사회교육관으로 사용하던 건물(現 국립고궁박물관)로 임시 이전을 해야 했는데, 이때 보관의 어려움과 본래의 유적지에서 가장 가까운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이전된게 아닐까 하는 추측뿐이다. 이건무 관장님은 유물이 아닌 복제품은 전시 보조물로 분류되어 이전하거나 폐기처분을 하더라도 별도의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

현재 국립경주박물관에 설치된 <천전리 암각화> 복제품 패널에는 암각화에 대한 설명만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을 뿐, 이 복제품이 1985년 국립중앙박물관회에서 기증했다는 어떤 표식도 없다. 언젠가 패널의 낮은곳에 국립중앙박물관회 1985년 기증이라는 작은 글씨라도 새겨지기를 바란다.

13) 문서번호 1986-02-17-0004
14) 문서번호 1986-02-17-0015

나눔의 가치

계윤애 회원

기증관으로 들어서는 입구, '나눔의 가치를 나누는 공간'이라는 문구가 가슴에 와 닿는다. 평소와 다른 마음가짐으로 기증관을 들어선다. 기증관에는 다종다양한 기증 유물들이 다채로운 사연을 품고 한껏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곳곳에 기증 유물에 담긴 서사와 사연을 이야기하듯 풀어놓아 기증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환기시킨다.
둘러보다 보니 숭고한 마음들 중에서 '국립중앙박물관회'라는 낯익은 이름이 눈에 들어온다. 반가움과 함께 은근히 자긍심을 갖게 되고 우리 회에서 기증한 유물에 남다른 애정을 느끼며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는지 살펴본다.

불교 경전을 보관하는 용도로 제작된 나전 칠 경전 상자는 청자, 불화와 더불어 고려 미술을 대표하는 공예품으로, 뛰어난 공예 기술과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고려시대의 나전 칠 경전 상자는 국내에 단 한 점도 없었는데 2014년 '국립중앙박물관회'가 일본의 한 소장가로부터 구입하여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함으로써 제자리를 찾아 우리와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상당히 많이 제작됐을 것으로 짐작되나 현재는 국내외를 통틀어 9점 정도 남아 있다(『법보신문』 2014. 7. 15.). 기증관에 전시된 1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본, 미국, 유럽에 흩어져 있다는 게 참 안타깝다. 국내 유일의 고려시대 나전 칠 경전 상자라는 점에서 희소성이 높으며 고려시대 나전칠기의 특징과 우수한 나전 기술을 잘 보여 주는 작품으로 뛰어난 가치를 인정받아 2018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나전 칠 경전 상자, 국립중앙박물관회 2014년 기증

모조법으로 새긴 모란 당초문

이 경전 상자는 고려 후기의 작품으로 추정되며, 작고 섬세하게 오려 낸 꽃무늬를 촘촘하게 나열하고 넝쿨 줄기나 무늬 사이의 경계선에 금속을 사용하는 등 고려 나전칠기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각 면의 모서리를 둥글고 부드럽게 모죽임했으며 각 면 가득히 모란당초무늬를 펼치고 그 주변을 마엽무늬, 귀갑무늬, 연주무늬로 장식했다. 정교하고 치밀한 모란당초무늬는 여백 없이 일정한 규칙으로 반복되며 자연스러운 선을 이루어 율동적인 느낌을 준다.

얇게 간 무늬를 하나하나 오려 낸 줄음질과 가늘고 긴 자개를 끊어 붙인 끊음질이 보이며, 꽃무늬 안쪽에 다시 선으로 파서 세부를 표현하는 모조법도 나타난다. 손가락으로 집을 수도 없을 만큼 극히 작은 조각들을 일일이 자르고 오려 붙이는 고된 작업으로 완성된 걸작이다.

나전 칠 연꽃 넝쿨무늬 상자, 국립중앙박물관회 2022년 기증

타찰법으로 새긴 연꽃과 이파리 무늬

작은 무늬로 면을 꽉 채운 고려의 나전 칠 경전 상자와는 달리 커다란 무늬로 넉넉한 여백을 두어 시원시원한 느낌을 주는 조선의 나전 칠 연꽃 넝쿨무늬 상자가 이채롭다. 자그마한 크기로 보아 귀중품이나 문방구 등을 보관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뚜껑이 몸체를 완전히 덮는 형태로 경첩이나 자물쇠 등으로 뚜껑과 몸체를 고정하는 고려시대의 나전 상자와 구별되는 조선시대 나전 상자의 특징이다. 뚜껑의 모든 면에 활짝 핀 연꽃과 봉오리가 섞여 규칙적인 반복으로 균형 있는 조화를 이룬다. 큼직큼직한 연꽃 무늬의 대담함, 넉넉한 여백, 연꽃과 이파리 무늬에 표현된 타찰 기법 등 고려시대의 나전칠기에서는 볼 수 없는 조선시대 나전칠기만의 특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타찰 기법은 무늬를 오려 낸 다음 나무망치로 두들겨 자연스럽게 깨지고 금이 가게 하여 모양대로 깨진 자개들을 붙이는 기법으로 조선에서 창안한 독자적인 기법이다.

이 상자는 일본의 한 수집가가 소장하고 있다가 사후 30년 만에 시장에 나온 것을 '국립중앙박물관회 젊은 친구들(YFM)'이 경매를 통해 구입해 2022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했다. 국내외에 4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될 만큼 16세기 조선의 나전 상자는 희귀하다. 이처럼 희귀한 유물인 만큼 'YFM'의 기증이 더욱더 값진 의미를 갖는다.

금동불감과 관음보살상, 국립중앙박물관회 2018년 기증

화각함 국립중앙박물관회 2002년 기증

2018년 고려 말 조선 초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 불감과 관음보살상이 일본에서 돌아왔다. 그동안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리 건판 사진으로만 확인되었는데 'YFM'의 노력으로 국내에서 실물을 보게 되었다.

불감은 불상과 함께 제작하여 사찰 이외의 장소에서 예불할 때 가지고 다니며 사용하거나 탑을 세우면서 탑 안에 봉안하기도 했는데,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 비슷한 모양의 금속제 소형 불감이 많이 제작되었다.

이 불감은 지붕 모양의 덮개가 없는 상자형으로 양쪽 문의 안쪽에는 금강역사상이 새겨져 있으며 내부 중앙에는 타출 양각 기법으로 부처의 설법 장면을 표현했다. 부처를 중심으로 좌우의 협시보살, 그 주변을 둘러싼 10대 제자와 불법을 수호하는 팔부중을 새겼다. 고려시대 불감 중 유일하게 팔부중이 등장하는 여래설법도를 표현했다는 점과 조선 후기에 등장하는 영산회상도의 시원으로 볼 수 있어 가치가 크다.

불감과 함께 전해지는 보살상은 보관에 화불이 있어 관음보살상으로 추정하는데 원래 2구였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1구만 남아 있다. 연꽃을 맞붙인 연화 대좌, 원반 모양의 귀걸이, 한쪽 다리를 세운 자세 등에서 중국 원·명대 양식의 영향을 받은 고려 말 조선 초에 제작된 불보살상의 특징을 볼 수 있다.

어설픈 그림으로 촌스러운 느낌을 주는 화각함이 화려한 색채로 눈길을 끈다. 세련미나 격조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익살스러운 표현과 대담한 구성으로 한국적인 정서가 짙게 배어 있어 오히려 더 친근한 정감을 불러일으킨다.

화각이란 소뿔을 펴서 종잇장처럼 얇게 갈아 만든 각지에 그림을 그리고, 그림이 그려진 면을 나무로 만든 함에 덧붙여서 장식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공예 기법이다.

각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뿔을 몇 시간씩 삶고 자르고 말리고, 다시 굽고 펴고 깎고 갈아야 하는 등 공정이 까다로워 생산량이 많지 않아 주로 왕실이나 상류층에서 사용했다.

2002년 '국립중앙박물관회'에서 기증한 화각함은 바닥을 제외한 겉면 전체에 봉황·학·호랑이·사슴·거북·두꺼비·불로초·구름 등 불로장생을 뜻하는 상서로운 상징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고, 옆면에는 오른손에 뭔가를 들고 앉아 있는 여인이 표현되어 있다. 화각지 사이사이에는 흰 뼈를 끼워 넣어 정갈하게 마무리했다. 숨은그림찾기하듯 그림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펴보며 각 칸마다 품고 있을 다양한 이야기를 상상해보는 재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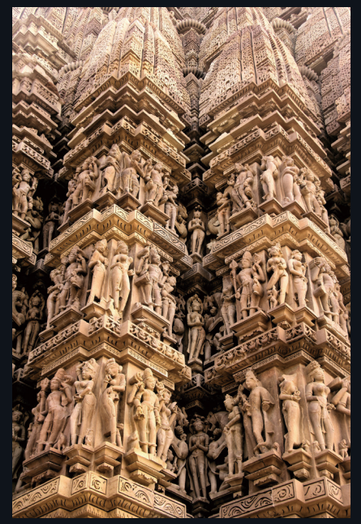
기증 유물을 둘러보며 눈앞의 아름다움 너머로 잔잔히 빛나는 마음을 헤아린다. 누군가의 수고와 노력이 없었다면 존재조차 몰랐을 귀중한 유물을 보며 나눌수록 더 커지는 기증의 의미와 가치를 새긴다.

삶 살아감 살아남음

서유미 회원

석조 미투나 부조, 국립중앙박물관회 2007년 기증

여기 애정행각 중인 남녀를 새긴 인도 조각상이 있다. 이런 것을 미투나mithuna라고 부른다. 안내 문구에는 11~12세기, 사암으로 만든 이 조각은 라자스탄 또는 우타르 프라데시에서 만들었다고 적혀있다. 현재 인도의 라자스탄주와 우타르 프라데시주를 합친 면적은 한반도 면적의 2.6배가 넘는다. 그렇다면 정확한 내력은 알 수 없다는 뜻이니 외형부터 뜯어본다. 일단 이들이 뭘 하고 있는지 파악해보자니 눈에 띄는 점은 옷은 안 입었으면서 장신구는 많이도 걸쳤다는 것이다. 그다음으론 여자가 남자의 목과 머리채를 잡고 상황을 주도하는 것 같으면서도 엉덩이는 뒤로 쭉 빼고 있는 어색한 자세가 볼 때부터 이상하게 느껴졌다. 계속 보니 이 여자는 이걸 해야 하니까 하는 중인가보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 사진을 찍어 얼굴 부분을 확대해보니 생각보다 표정이 근엄해 보이고 시선도 상대방이 아닌 허공에 있는 것 같다.



칸다리야 마하데바 사원, 카주라호

유물에선 별다른 단서를 못 찾으니 아무래도 행정구역상으론 다른 주지만 우타르 프라데시와 가까우면서도 에로틱 조각으로 유명한 카주라호의 사원들을 살펴보기로 했다. 거기엔 아무리 더 나은 표현을 생각하려고 해도 우리 박물관 것보다 훨씬 쭉쭉빵빵하다라는 속된 표현밖에 생각나지 않는 인체 비율에 더 적나라한 성행위들을 묘사한 미투나상들이 사원 외벽을 장식하고 있다. 우리 박물관 것도 그렇게 어느 사원 외벽에 붙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벗은 줄로만 알고 있던 이들이 실은 옷을 챙겨 입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다리 부분을 잘 살펴보면 옷단과 주름 표현을 볼 수 있다. 어차피 야한데 옷을 입으나 벗으나 뭐가 대수인가 싶지만, 옷과 장신구로 신분과 역할을 추정할 수 있으니 나름 중요한 점이다. 전문가들의 해설보다 유창한 한국어로 능수능란하게 설명하는 인도인 가이드를 찍은 동영상이 의외로 도움이 됐다. "이 사람

들 탄트라 요가 하고 있어요.", "가운데 두 사람은 선수예요. 양옆에 두 명은 학생이고요.". 그럼 박물관 미투나상의 남녀는 연인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둘이 다 선수는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사원에 속한 신관이나 무녀가 사원을 찾은 남자 신도에 응하는 것 같다고 자체 해석을 해본다.

물론 미투나 해설에는 늘 탄트라, 밀교, 음양 합일, 지모신, 다산, 여신 숭배 등의 단어가 등장한다. 하지만 그런 비슷한 것들은 다른 문화권에도 있다. 정말로 궁금한 점은 이런 것이다. 권력자들은 어떤 의도로 어디서도 유례를 보기 힘든 이런 사원을 짓는 데 많은 재물과 자원을 쏟아부었을까? 백성들은 이런 사원을 지으면서 즐거워했을까 힘들어했을까? 당시 지식인들은 이런 현상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런 게 궁금해서 인도 역사를 파다가 세월을 거슬러 기원전에 살았던 의외의 인물에 도달했다.

영웅英雄, 아니 대웅大雄이 될 자의 상像이 여기에 있다. 지금도 동아시아의 많은 절엔 그를 모시는 대웅전이 있다. 미래시제로 말하는 이유는 아직 깨달음을 얻기 전의 행색이어서이다.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묶어 올린 머리에 띠를 두르고, 목걸이와 팔찌, 그리고 화환을 두른 그는 아직 보살이다. 당시 간다라의 조각가들은 깨달음을 얻은 후의 그의 모습은 장신구를 모두 빼고 양 어깨를 감싼 모습으로 표현했다. 생전 자기 일상의 기록과 모습조차 남기지 못하게 했는데도 사람들은 그를 숭배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사리를 모시고 탑돌이를 하다가 결국엔 오백여 년이 지나서 그의 형상을 창조해냈다.

그는 영웅이 될 생각은 안 했던 것 같다. 하지만 그가 살았던 시대는 영웅 서사의 배경이 되기 딱 좋은 난세였다. 중국의 춘추전국시대와 비슷한 시기에 인도는 급격한 도시화 현상을 겪고 있었다. 좋게 보자면 철기가 보급되면서 인간의 활동영역이 넓어지는 진보의 시대지만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없던 국가와 왕이 생기고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동안 자신을 보호해주던 부족사회가 해체되어 기댈 곳마저 없어지는 고통의 시간이었다. 동시대 중국에서 제자백가들이 활보했던 것처럼 인도에서는 몇백 년에 걸쳐 지금까지도 인도 철학의 근간이 되는 우파니샤드가 형성되는 중이었고 자이나교와 불교를 비롯한 여러 사상이 일어났다. 이들은 안 그래도 고통스러운 격변의 시대에 오히려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브라만들의 질서에서 어서 벗어나라고 촉구했다.

석가모니의 사상은 대성공을 거둬 불교는 인도에서 천 년이 넘게 흥했다. 하지만 그를 따르는 자들은 인과에서 오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상과 인연을 끊고, 소유하지 말 것이며, 혼자 힘으로 깨달아 윤회를 끝내라고 한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를 수가 없었다. 피치 못할

석조보살 입상, 국립중앙박물관회 2008년 기증

석조 비슈누 부조, 국립중앙박물관회 2006년 기증

여건 때문에 출가 제자들은 승원에서 함께 머물며 교단을 형성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을 사랑하고 물심양면으로 후원하는 재가 신도들과의 연 또한 끊어버릴 수가 없었다. 게다가 아소카왕 같은 강력한 세속 군주들이 그들을 속세의 연에 더 단단히 묶었다. 결국, 그런 상황에 맞춰 교리를 수정해 나가는 과정에 석가모니는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신으로 추대되고, 그러다 불교는 인도 밖으로 나가 세계종교가 되었다.

새로운 사상에 밀려나지 않으려고 애쓴 브라만들의 결실 또한 여기에 있다. 인도의 마지막 불교 왕조이며 익히 알려진 불교 성지들이 위치한 지역을 다스렸던 팔라 왕조시대에 만든 비슈누 상이다. 결국엔 내가 불교의 본산에서 승리를 거뒀노라 선언하는 것 같다. 조각가는 보관을 쓰고 고귀한 자의 복장을 한 비슈누 신의 오른쪽에 총채를 든 락슈미 여신을, 왼쪽에는 악기를 든 사라스바티 여신을 배치했다.

브라만들은 매우 노련하고 유연했다. 새로운 사상들을 배척하기는커녕 그 내용을 받아들였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개혁은 절대 아니었다.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크게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약간의 양보를 하면서 살짝 끼워줬달까. 한편 수평적 관계였던 신들 사이에 위계가 생겨났다. 도시에 살게 된 사람들은 유목이나 농경시대에 강력했던 자연의 신들에게서 멀어졌다. 대신 옛날엔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던 두 신이 최고위로 떠올랐다. 선이나 빛, 생명과 관련된 신들은 비슈누의 화신이나 가족이나 친구가 되거나 아예 그들의 속성을 비슈누가 가져버렸다. 저 조각에 있는 두 여신도 배우자가 된 경우이다. 브라흐마의 아내로 널리 알려진 사라스바티 여신이 어떨 땐 비슈누의 아내가 되는 것도 큰 문제는 아니었다. 다시 시집보내면 되니까. 같은 식으로 악이나 어둠, 죽음 등과 관련된 신들은 시바를 중심으로 모였다. 어둠과 악조차도 가치판단을 하지 않고 녹여버리는 소화력이 놀랍다. 이렇게 나중에 힌두교로 알려지게 되는 종교가 체계를 갖췄다.

과거에 반기를 든 사상을 상대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남신을 짓밟아버리는 난폭한 모습은 여신을 주로 섬겨 여성 성기에 근원한 에너지를 숭배하며 성교로 음양 합일을 추구하고 갖가지 주술을 믿는, 기존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믿음을 갖는 탄트리즘, 즉 밀교까지도 거뜬히 소화시킨 결과가 미투나상으로 덮은 사원이었다.

그럼에도 여성의 위상이 높아진다거나 신분제가 약화되는 사회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덕분에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스트레스를 해소한 사람들은 기존 질서 안에서 무난히 지냈다고 한다. 이렇게 지독할 정도로 현실에 잘 적응한 결과 그들은 인도 아대륙의 종교경합에서 승리했다.

이번 탐구의 여정에서 저서와 강연 동영상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던 부산외대의 이광수 교수가 한 말이 귀에 맴돈다. "힌두교는 구원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종교냐?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종교다, 각자 알아서."

사시사철 답사하는 마음으로 70개의 사찰을 바라보다

2024 연구강좌2 <한국의 사찰>

최선주 전 국립경주박물관장

삼국시대에 우리 땅에 전래된 불교는 우리의 삶과 우리나라 정치사회, 문화예술 전반에 지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름난 명승마다 자리한 고찰(古刹)을 비롯하여 현재 국가지정문화유산 중에 불교 문화유산이 60%나 차지하고 '아수라장(阿修羅場)', '야단법석(野壇法席)'과 같은 불교에서 유래한 단어가 곧잘 쓰이고 있는 것만 봐도 불교가 이 땅에 미친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더욱이 요즈음에는 홍매화를 즐기는 상춘객(賞春客), 산사의 고운 단풍을 보러오는 등산객,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템플스테이에 참여하는 사람들 등, 불교 신도가 아니더라도 사찰을 찾는 이들도 많다.

분명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우선 눈으로 접해보고 관심을 갖게 되면서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 저마다의 이유로 사찰을 찾다 만나게 되는 일주문, 사천왕문, 불이문과 같은 문(門)과 대웅전, 무량수전, 대적광전이라는 현판이 걸린 법당들과 그 안에 모셔진 다양한 자세의 불상을 마주하게 되면 그 의미와 내력이 궁금해지곤 한다.

이번 국립중앙박물관회 박물관강좌 연구반의 <한국의 사찰> 강의는 사찰의 내력, 사찰에 담긴 불교사상, 관련 인물, 사찰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그간 사찰에 대해 품어왔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강의는 '삼보사찰', '유네스코 7대 산지승원', '구산선문' 등으로 명명되어 너무나 익숙하지만, 자세히 살펴볼 기회는 적었던 사찰들에 대해 이해하고, 사찰을 통해 우리나라 불교의 역사와 사찰의 변천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영주 부석사 안양루와 석등

우선 사찰에 자리한 각각의 건물의 용도와 배치에 대해 알아보고, 통일신라시대 불교의 융성을 보여주는 불국사와 석굴암, 불교의 수용 이래 우리나라에서 시대를 초월하여 유행한 화엄신앙, 미륵신앙, 관음신앙을 대표하는 사찰들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이른바 '삼보사찰'로 널리 알려진 양산 통도사 합천 해인사 순천 송광사, 201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인 양산 통도사 영주 부석사 안동 봉정사 보은 법주사 공주 마곡사 순천 선암사 해남 대흥사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또한, 신라 하대에 이르러 선종이 유입되며, 경주를 벗어난 다양한 지역에 사찰이 들어서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구산선문' 사찰인 장흥 보림사 남원 실상사 문경 봉암사 등을 조명하며 선종 사찰을 이해하고 이들 사찰에 봉안된 철불의 특징과 승탑과 탑비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구례 화엄사 사사자석탑

한편 조선시대에 이르면 불교의 여러 종파는 선교(禪敎) 양종으로 통폐합되고 승려를 선발하는 승과(僧科)는 폐지되었으며, 승려는 도성에 출입할 수 없게 되는 등 사회의 변화에 따라 불교계는 여러 영향을 받게 된다. 이에 수도에 국가적으로 다수의 사찰이 건립되기도 했던 이전 시대와 달리, 사찰은 점차 도성 밖 산지에 위치하게 되며, 예배 공간인 주불전(主佛殿)은 다양한 법회(法會)와 의례가 개최되는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변화와 어려움 속에서도 사찰이 그 명맥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왕실의 비호와 임진왜란에서의 승군(僧軍)의 활약 덕분이었다.

흔히 조선시대를 숭유억불의 시대라 일컫지만, 조선 왕실에서 사찰을 마냥 억압했던 것만은 아니었고, 사찰이나 불사(佛事)를 후원했음을 보여주는 다양한 예가 존재한다. 왕실에서는 돌아가신 선친이나 요절한 자식의 극락왕생을 빌기 위해 사찰에 원당(願堂)을 두기도 했으며, 건강을 회복하거나 아들 회임을 위해 불상이나 불화 조성을 주도하기도 했다. 또한, 남양주 봉선사, 여주 신륵사, 화성 용주사와 같이 왕릉 주변에 위치한 사찰을 왕릉 수호 사찰로 지정하고 해당 사찰에 일부 특혜를 주기도 했는데, 이는 사찰이 존속하는 중요한 명분이 되었을 뿐 아니라 재정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은 조선에 막대한 상흔을 남겼고, 불교계 역시 많은 사찰이 소실되고 중요 불교 문화유산이 약탈되는 등의 많은 피해를 보았다. 이러한 가운데 사명 유정(四溟 惟政, 1544~1610)을 비롯한 수많은 승군들이 눈부신 활약을 하였고 그 덕분에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전란 이후에는 벽암 각성(碧巖 覺性; 1575~1660)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사찰 재건이 이뤄진다. 그가 참여한 불사 중 완주 송광사, 구례 화엄사, 하동 쌍계사 등을 살펴봄으로써 전란 이후 사찰 중창을 주도한 승려 문중과 승려이자 장인으로서 활약한 '승려장인'들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삼국시대 불교의 수용 이래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사찰이 세워졌고, 역사의 흐름과 함께 흥망성쇠를 겪으며 지금에 이르렀다. 이러한 시간을 지나온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를 간직한 귀한 절들을 탐방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보자. 꽃피는 봄부터 눈 내리는 겨울까지의 강의 과정을 통해 전국 각지에 자리한 70개의 사찰을 조잘조잘 살피면서 사찰을 더 잘 알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도 요즘 말로 '사찰 잘알'이 되어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때이든, 상춘객으로서, 피서객으로서, 때로는 등산객이나 여행객으로, 어떤 이유에서 사찰을 찾더라도 아는 만큼 보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작가들의 삶에서 사람 사는 이야기를 발견하다

2024 연구강좌3 <30인의 미술작가와 그들의 삶>

국립중앙박물관회 2024년 박물관강좌 중 연구강좌3 <30인의 미술작가와 그들의 삶>은 20세기 동서양 미술가들의 다양한 삶과 그것이 투영된 작품을 함께 감상하며 우리를 둘러싼 관계, 공간 같은 삶의 모습을 다각도로 성찰해보는 강좌입니다. 프리다 칼로, 쿠사마 야요이, 권진규, 클림트 등 거장들의 작품이 나의 삶과 연결되는 강좌를 기획한 정하윤 미술사가를 만나봅니다.

Q1. 안녕하세요 교수님, 우리 회지 <박물관강좌 소개>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술사가 정하윤입니다. 저는 고등학교와 대학 시절에는 서양화를 전공하다가 석사와 박사를 거치며 미술사를 본격적으로 공부했습니다. 학위 마치고 귀국한 이후에는 주로 학계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렇게 좋은 예술을 더 많은 분들과 누리고 싶다는 마음이 켜져 최근 몇 년간 대중과의 접점을 점점 더 늘려왔어요. 요즘에는 국립중앙박물관 등 여러 기관에서 강의를 하고, 단행본과 신문, 잡지 등을 통해 미술과 관련된 글을 쓰고 있습니다.

Q2. 대학에서도 강의하셨고, <동아시아 근현대미술사>를 시작으로 2022년부터 박물관강좌에 출강하셨는데, 박물관회 강좌와 수강생분들에게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점이 있으실까요?

물론이에요. 박물관회 강좌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자발적이고 진지한 학구열이 있어요. 들으시는 분들의 지성이 엄청나기 때문에 강사로서 더 노력하고, 더 깊이 있게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점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예술이나 인문학을 향한 순수한 열정에 매회 감동해요. 사실 박물관회 강좌는 학점이나 학위, 또는 자격증 같은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정말 열심히, 또 즐겁게 들어주세요, 이 점이 강사로서 너무나 신나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되요. 강의 준비하면서 슬라이드를 계속 추가하는 저를 발견해요. 이 작품도 보여드려야지, 이 이야기도 들려 드려야지 하면서요. 강사로서 수강생분들의 예술과 학문에 대한 순수한 열정에 자극을 받게 되는 거죠.

Q3. 올해 강좌 <30인의 미술작가와 그들의 삶>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강좌를 기획하시면서 중점을 두신 부분과 강좌에서 다루는 작가들의 선정 기준, '삶의 모습'으로 꼽으신 관계와 공간들이 대해 궁금합니다.

올해 진행하는 <30인의 미술작가와 그들의 삶>은 저 스스로도 기대가 많이 되는 강좌에요. 대개의 미술사 강의는 거의 항상 시대와 지역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서양미술사/동양미술사/현대미술사/한국현대미술사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구역을 나누고, 그 구역 안에서 시대 순으로 쭉 훑어 내려오는 것이 미술사 공부의 기본 루트인 거죠.

반면, 이번 강좌에서는 이 모든 것을 섞어 주제별로 묶었어요. 그림은 결국 사람 사는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사람 사는 이야기는 결국 통하기 때문에 주제별로 묶어 보는 것이 가능하고 또 유의미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예를 들어 예술가들끼리 우정을 나눈 것, 예술가의 흥미로운 사랑 이야기, 좌절을 딛고 자신의 예술 세계를 확립한 것은 동서고금 공통적인 부분이더라고요. 자신의 집과 정원을 가꾸며 작업 세계를 펼친 미술가들도 많고요. 이처럼 공통적인 주제별로 묶어서 동서양의 미술을 같이 보면 정말 재미있겠다 싶어요. 사람 사는 것 다 비슷하구나 싶으면서도 예술은 참 다양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라 기대해요.

저희 강좌에서는 다양한 미술가들을 다룰 거예요. 미술사를 대표하는 거장들이 당연히 들어가지만, 생소하지만 너무 좋은 작품을 남긴 미술가들도 살펴보려 해요. 주제별로 아주 잘 알려진 작가와 비교적 덜 알려진 작가를 섞어서 배치했어요. 원래 알던 작가는 더 깊이, 모르던 미술가는 새롭게 발견하는 기쁨을 드리고 싶어서요. 동시에 동서양의 비중을 비슷하게 하려고 애썼어요. 강의 횟수와 제 지식의 한계로 '동양'은 주로 동아시아이고, '서양'은 대부분 유럽의 작가들을 다루게 되겠지만, 미술은 넓고 작가는 많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맛보여 드리고 싶어요.

Q4. 수강생들이 이번 강좌에서 특별히 얻어갔으면 하는 부분,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가장 큰 바람은 강좌를 통해 미술의 다양성을 누리시는 거예요. 제가 미술에서 제일 좋아하는 특성 중 하나가 바로 다양성이거든요. 같은 주제를 다루더라도 사람에 따라 자기만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만의 표현을 하는 것이 너무나 멋지게 느껴져요. 그렇게 다양한 개성이 발휘되기 때문에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진다고 믿고요. 그리고 그 모두가 설령 내 '취향'은 아닐지언정 '오롯이 자신으로 표현했다'는 점만으로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강의를 들으시면서 미술이 보이는 다양성에 감탄하시고, 그것을 함께 기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Q5. 미술사에 관심 있는 수강생이 많습니다. 미술사를 처음 접하시는 분, 깊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해주실 만한 책(전시 혹은 강의 등)이 있으실까요?

미술사를 처음 접하시는 분에게는 다양한 입문서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보다 아카데믹하게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서양미술사 통사부터 권해 드려요. 미술사의 고전은 사실 곰브리치가 쓴 서양미술사인데요, 솔직히 아주 쉽게 읽히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도 고전이니까 한 번쯤은 들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예전 버전보다 훨씬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조금 더 쉽게는 양정무 교수님의 『난처한 미술사』(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미술이야기) 시리즈가 있어요. 곰브리치보다 가독성이 좋아요. 배경지식이 전혀 없이 그냥 쭉 읽으시면 휘발되기 쉬우니 정리를 하시며 읽어 나가시거나 서양미술사 강의를 들으시면서 읽으시면 미술사의 뼈대를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 분홍 장미가 있는 정물화(Still Life with Pink Roses), 캔버스에 유화, 71x91cm, 1890, 내셔널갤러리, 워싱턴 DC

더 깊이 들어가시려면 시대별/지역별/작가별로 나눠진 책들을 보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요. 예전에 한길아트나 시공아트에서 나왔던 사조/예술가 시리즈처럼요. 어느 책을 고르시든 미술사의 큰 줄기를 먼저 잡으시고, 더 알고 싶으신 미술가와 사조를 깊이 들어가시는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한국미술사의 경우는 이태호 선생님이 쓰신 『이야기 한국미술사』가 저는 좋더라고요. 20세기에 국한지어서는 제가 쓴 『커튼콜 한국현대미술』이 작가 30명을 시대 순으로 엮어서 작가 공부도 하시면서 시대를 훑을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하고요, 『살롱 드 경성』, 『시간을 건너온 그림들』, 『살아남은 그림들』 등의 책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술사 책은 아니지만, 요즘 나온 좋은 책으로는 『눈이 보이지 않는 친구와 예술을 보러 가다』와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가 있어요. 두 권 모두 작품을 감상한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강력 추천합니다.

더불어 미술책을 고르실 때는 정말 신뢰하고 읽을 수 있는 저자인지를 꼭 확인하시라는 팁도 드립니다.

Q6. 마지막으로 수강생분들께 전하는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항상 경청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 먼저 드리고 싶어요. 올해도 격주 화요일마다 좋은 그림 많이 보여드릴게요. 일 년 동안 함께 예술을 만끽하시면 좋겠습니다.

특설강좌 3기, 5기 수료생을 만나다.

국립중앙박물관회의 박물관강좌 중 '연구강좌'는 1년 과정인 '특설강좌'를 수료한 분들이 결성한 스터디모임(전통문화학습회, 박연회, 온고회 등)이 발전하여 1997년부터 개설되었습니다.
초기 박물관강좌 수강생분들은 우리회 박물관강좌의 토대를 닦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47기 수강생을 맞이한 특설강좌를 1979년 3기로 수료하신 박순자 회원, 1981년 5기로 수료하신 홍원복, 유명자, 최신자 회원을 만나보았습니다.

Q1. 안녕하세요 선생님, 회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에 대해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기 수료생 박순자, 5기 수료생 홍원복, 유명자, 최신자입니다. 3기 수료생이 여기 5기 수료한 분들과 함께 하는 이유가 궁금할 테지요. 지금은 연구강좌가 된 스터디그룹이 1기부터 4기 수료생까지는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강좌에서 배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컸는데, 5기 수료생들이 나올 때가 되서야 그런 스터디 모임이 만들어졌다는 소식이 들렸지요. 그래서 그 모임에 참여한 것이 4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 친구들과 함께 온 것입니다.

Q2. 1979년, 1981년에 특설강좌들을 수료하셨는데, 당시 박물관강좌를 알게 된 계기와 강좌에 임하신 마음이 궁금합니다.

강좌는 신문광고로 봤던 기억이 나요. 그때 강좌를 너무나 듣고 싶었는데, 강좌에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이 당시엔 가족이 외교관이거나, 외국에 주재한 주재원, 또는 국사 선생님처럼 역사 관련한 전문직에 속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 저는 해당사항이 없었어요. 그래도 굉장히, 굉장히 듣고 싶은 마음에 우리 강좌를 2기로 수강하고, 남편이 해당분야에 종사하던 친구에게 부탁하였지요. 그랬더니 친구가 먼저 2기로 특설강좌를 수료하고, 다음 강좌에 딱 한 사람만 추천할 수 있다 해서 저를 추천해주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제 두 아이가 2살, 3살로 아주 어렸는데도 두말않고 신청을 했지요. 5기부터는 선착순으로 신청이 가능했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초기 수강생분들은 이 박물관강좌를 수강했다는 자부심이 대단하죠. 저도 그렇고요.

(왼쪽부터) 홍원복, 유명자, 최신자, 박순자 회원

Q3. 박물관회가 올해 50주년을 맞이합니다. 박물관강좌는 올해로 47년째 운영되고 있는데요. 선생님들의 소감이 궁금합니다.

강좌가 처음엔 조금 엉성한 부분도 많았어요. 시스템도 자리가 잡히지 않았고 중구난방이었죠. 그런데 한 15~16년 전부터는 완전히 체계가 자리잡았고, 알찬 강좌들도 너무나 많이 생기고, 이젠 아주 완벽한 박물관강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Q4. 지금까지 수강하신 강좌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강좌는 무엇일까요?

고미숙 선생님의 강좌가 기억에 남아요. 전반적인 국학에 대해 다룬 강좌였는데, 비제도권 중에서 아주 대단하신 분이에요. 동아일보에 실리던 칼럼을 1년여 동안 읽다가 선생님께 정말 반했는데, 우연히 그 다음해 우리 강좌를 맡으셨어요. 그래서 수업을 아주 감명 깊게 들었지요.
그리고 한양대 이희수 교수님, 올해도 수업 듣는 경희대 강인욱 교수님 강좌도 정말 좋습니다.

Q5. 연구강좌의 토대가 된 스터디모임에 대해 좀 더 소개해주세요

저는 5기부터 만들어진 전통문화학습회부터 참여했어요. 그러다 스터디모임 인원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박우회와 합쳐서 박우전통학습회로 몇년을 운영하다가 박물관회 자체적으로 강좌 개설을 하면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당시엔 각 기수마다 스터디그룹을 만들어서 박물관과 협의해 모일 장소도 구하고, 교수님들을 직접 초빙해서 서울 시내와 각 대학의 모든 박물관들을 방문하는 수업을 만들기도 했어요.

Q6. 올해엔 네분 모두 연구강좌8 <실크로드와 한반도의 문명교류, 그리고 문화재 전쟁>을 선택하셨는데, 특별한 선택의 이유가 있을까요?

강좌에서 얻어가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좌는 함께 수업을 듣는 친구들과 만나는 장이 되기도 해요. 서로 헤어지기 싫으니까요. 일정한 요일과 시간을 정해서 거기에 배정된 수업을 듣기도 해요. 화요일 오전으로 시간을 정해 수업을 몇 년 듣다가, 그 다음엔 화요일 수업을 너무 많이 들었으니 목요일 수업을 들어보자 하곤 목요일 수업을 듣고, 이런 식이지요. 조금은 민망하기도 하지만 박물관강좌에서 만난 친구들이 40년이 넘도록 같은 날 수업을 들어온 것도 의미가 있지요. 그렇게 요일과 시간을 정해놓으면 해외여행 일정도 바꿔가면서 박물관에 모이는거예요.

Q7. 박물관강좌만의 특별한 점은 무엇일까요?

관련 분야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교수님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지요. 우린 유명하신 대학 교수님들 수업은 다 들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교수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대학원생들 대상의 강좌보다 우리를 대상으로 한 강좌에서 더 심도 있는 수업을 할 수 있다고 하셔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자가 익숙한 세대잖아요. 박물관강좌에선 주제별로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다 보니 한자로 된 표현들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는 그런 면에선 오히려 젊은 친구들보다 이해가 빠르고, 교수님들에게서 더 심도 있는 내용을 끌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도 더 만족해하시지요. 우리로서는 뿌듯한 점이에요.

Q8. 마지막으로 아직 박물관강좌를 접하지 않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말씀을 전해주세요!

무조건 들어라! 아주 무조건 와서 들으라고 하고 싶어요.

경주 안압지에서

1975년 8월 10일. 경주고적답사

국립중앙박물관회의 정기답사는 1975년 경주고적답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480회가 넘는 시간동안 우리나라 곳곳의 유적지와 박물관을 탐방하고 있습니다.

첫 답사지 경북 경주는 정양모 당시 국립경주박물관장의 특별안내로 새롭게 문을 연 박물관과 98호 남분 발굴 현장, 안압지 유물출토현장을 답사했습니다. 2024년은 2월 경기 남양주를 시작으로 충북 단양, 강원 영월, 충북 괴산 등 아홉 지역의 문화유산을 살펴보려 합니다.

올해 정기답사 일정과 지역은 '박물관회 소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근교의 보물을 찾아서:
남양주와 하남 지역 답사기

강경필 국립중앙박물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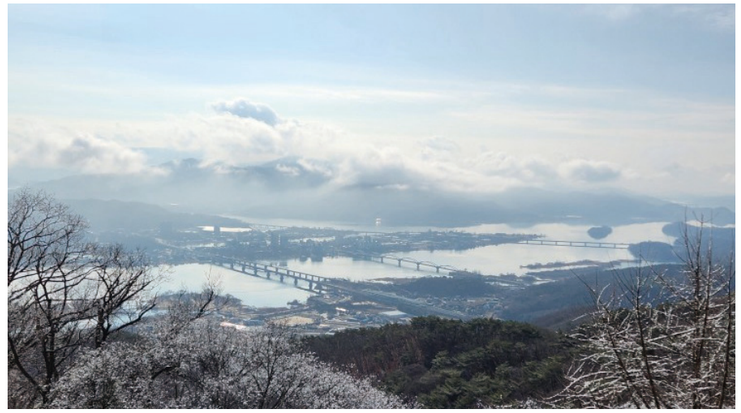
보물(寶物).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보물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썩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배로운 물건. 보물은 귀중하기에 흔하지도 않고 다가가기도 어렵지만, 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에 진귀한 경험과 만족감을 더해줍니다. 그렇다면 고된 여정 끝에, 또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감춰져 있던 보물을 만나는 것은 얼마나 더 즐거운 일일까요? 입춘이 막 지나 서서히 날이 풀리던 2월의 어느 날, 국립중앙박물관회에서는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지역으로 2024년 첫 정기답사를 떠났습니다. 서울과 가까운 두 도시에서 찾은 세 가지 보물을 찾아 나선 여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물은 남양주 운길산에 위치한 수종사입니다. 이곳은 조선 전기 최고 문장가 중 한 명인 서거정(徐居正)이 동방 사찰 중 제일의 전망이라고 극찬한 풍경을 품은 고찰입니다. 보물이 진귀한 이유는 구하기도 다가가기도 어려워서일까요? 수종사는 아름다운 풍광으로 유명하지만, 그 절경을 만나기 위해 좁고 가파른 산길을 올라야만 합니다. 심지어 이번 답사에서는 산 아래부터 수종사까지 도보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힘든 산행에 다리는 아프고 숨이 가빠와도 잠시 멈춰 뒤를 돌아보면 어렴풋이 구름 안에 포개진 북한강의 아름답고 신비로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다시금 걸음을 내디딜 힘을 내 봅니다.

수종사는 남양주 운악산 봉선사의 말사로, 규모는 비교적 작은 사찰이지만 보물로 지정된 세 기의 석탑과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다도(茶道) 문화로 유명합니다. 특히 수종사 사리탑은 태종의 딸 정혜옹주를 추모하기 위해 세종 21년인 1439년 제작된 것으로, 석탑 옥개석에 제작 주체와 시기가 뚜렷이 새겨져 있어 중요한 사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수종사 사리탑뿐만 아니라 옆에 자리한 오층석탑과 삼층석탑 모두 두터운 지붕돌이 돋보이는 조선시대의 석탑 양식을 충실하게 보여주는 귀중한 유물입니다.

수종사

수종사의 진정한 보물은, 바로 수종사에 오르면 만끽할 수 있는 장쾌한 풍경입니다. 수종사 앞에 펼쳐진 탁 트인 정경을 바라보면 북한강과 남한강, 두물머리의 모습이 한 폭의 수묵화처럼 담담하고 호방하게 펼쳐집니다. 어떤 풍경은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마치 명상을 하는 듯 마음을 안정시켜 줍니다. 고된 산길을 오르고 또 오르다 마침내 수종사에 도착해 맞이한 풍경은 일상의 고행과 번뇌 끝에 맞이한 깨달음과 편안함에 견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종사가 품은 풍경 그 자체가 수종사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종사 앞 북한강, 남한강, 두물머리의 모습

교산동 마애약사여래좌상

수종사의 풍경에서 힘든 여정 끝에 누릴 수 있는 진귀한 보물을 얻을 수 있었다면, 지금부터 소개할 하남의 두 유적에는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는 기쁨이 녹아 있습니다. 하남의 두 보물, 교산동 마애약사여래좌상과 동사지 주변은 모두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곳에 고려시대부터 자리를 지키고 있던 고적이 있을 줄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하남 지역은 백제 때부터 수도 한성에 근접해 있었고, 고려시대에 광주목(廣州牧)이 설치되어 조선시대까지 정치, 경제, 군사의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하남'이라고 하면 스타필드와 미사리를 먼저 떠올린 자신이 잠시 부끄러워졌습니다.

교산동 마애약사여래좌상은 재개발 지역의 좁은 시골길 끝에 있는 선법사라는 작은 절 옆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선법사 옆 냇가 바위에 덩그러니 새겨진 약사여래좌상은 특별히 훼손된 부분 없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 모진 세월과 거친 비바람을 모두 견뎌내고도 평안해 보입니다. 이 약사여래좌상은 '태평이년명 약사여래좌상(太平二年銘 藥師如來坐像)'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는 불상 옆 문구에 '태평 2년(977)에 석불을 고쳐 지어 황제의 만세를 기원한다'고 적힌 데서 유래합니다. 부처의 옷 주름과 연꽃 대좌 조각 기법이 선명하면서도 유려하고, 중수 시기가 특정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려 초기 불상 연구에 아주 중요한 유물이라고 합니다.

하남의 두 번째 보물, 동사지석탑은 선법사 가는 길보다도 더 좁고 외진 길을 따라 들어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외진 길 끝에 동사지의 두 석탑이 늠름한 자태로 답사객들을 맞이합니다. 두 기의 석탑 모두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두 기의 석탑을 거느린 절은 세워졌을 당시의 위상이 매우 큰 절이라고 합니다. 1980년대 고속도로 공사 중 발굴된 동사 절터의 크기로 봤을 때 신라 최대의 사찰이라고 전해지는 황룡사와 비슷한 규모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동사는 지리적으로나 건물 규모로나 고려시대 한강 이남 지역의 중심 사찰이었을 것입니다. 동사지를 지키고 있는 두 석탑의 조화롭고 균형 잡힌 아름다움을 감상하면서, 천 년 전 지금의 빈터를 가득 채웠을 웅장한 사찰의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동사지석탑

이번 답사를 돌아보면서, 남양주와 하남에 이렇게 아름답고도 귀중한 보물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참 놀라웠습니다. 남양주와 하남의 답사지들은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수년 뒤 아파트가 들어올 재개발 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다른 답사지들에 비해 조명을 덜 받고 있습니다. 이미 찬란히 빛나고 있는 보물 같은 유적지들을 둘러보는 것도 좋지만, 우리 가까이에 있어 충분히 조명받지 못한 숨은 보물 같은 유적지를 찾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아마도 그 보물들이 들려주는 풍부한 역사와 아름다움에서 답사의 참된 즐거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2월 정기답사 참여 회원의 답사 소감문을 소개합니다.

이제 쓴다. 경기 남양주 정기답사 소감문을..

먼저, 수종사..생각나는 것, **냄새**.. 수종사를 향해 오르기 시작하면서 맡은 장작타는 냄새.. 장어를 굽기위한 것인지, 날이 추워 난방을 하기 위한 것인지 몰라도 시골 느낌의 냄새였다. 절을 향해 가는 산 중턱 부근에서 맡은, 나무에서 나오는 신선한 냄새.. 서울이라는 도시 빌딩 숲에서는 맡을 수 없는 숲속의 냄새.. 건강해지는 느낌의 냄새였다. 수종사에 도착할 무렵에 맡은 차가운 소리의 냄새.. 답사 전날에 내린 눈이 나무 위에 얹혀 있다, 파란 하늘에 어울리게 녹아 떨어지면서 나는.. 주위에서 "답사 날을 참 잘 잡았어."하는 소리가 절로 나오게 하는 냄새.. 이때 나는 핸드폰을 들어 사진 한 컷을 찍었다. 잘 찍지는 못했지만 느낌을 전하고 싶다.

그 다음, 멋진 눈꽃 **설경**과 수종사에서 바라보는 두물머리 **조망**.. 너무 멋있었다. 뭐라 더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 글을 읽는 분들중 아직 수종사에 가보지 않으신 분은 한번 가보세요. 후회하지 않을거예요. 마지막으로, 배우며 알아가는 **재미**.. 수종사에 연대 비교 기준점이 되는 **사리탑**이 있었는데, 이는 세종때에 태종 이방원의 딸 정혜옹주를 추모하기 위하여 건립한 사리탑이라고.. 탑에 제작년도가 표기되어 있다고.. 답사때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생각나지 않는다. 아쉽다.

두 번째, 다산 정약용 유적지 방문.. 생각나는 것, '**자찬묘지명**'.. 알게 모르게 정약용 선생님의 저서나 생애를 배워 알고 있었는데, 스스로가 회갑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생애와 업적 등을 기록한 묘지명까지 작성했다니 놀라웠다. 나도 그럴 수 있을까 **반문**해 보았다.

세 번째, 하남 교산동 마애불, 동사지 석탑, 하남역사박물관 방문.. **마애불**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정교하다. 멋있다."는 말이 절로 나와 사진을 찍었다. 해설을 들어보니 이 마애불에도 수종사 사리탑과 같이 제작년도를 알 수 있는 문구가 있어, 연대 비교 기준점이 된다고 한다. 또한 동사지 석탑과 하남 역사박물관에 있는 철조 불상의 대좌는 당시 이 지역에 큰 사찰이 있었으며, 이 지역이 융성했을 것이라는 걸 알려준다고 한다. 숨어있던 알려지지 않은 유물, 유적지 답사를 통해 역사를 배워가는 **재미**.. 답사 **유익**하고 즐거웠다. 또 정기답사 가야지..

*글쓴이의 요청으로 성함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석가모니의 사리를 담은 스투파,
인도 아마라바티유적센터박물관

남인도의 찬불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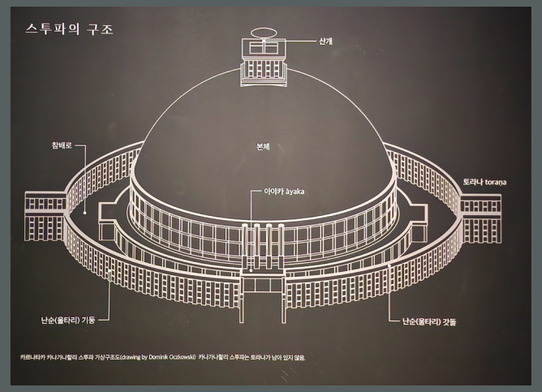
≪스투파의 숲: 신비로운 인도이야기≫ 展을 보고

황문영 회원

스투파 꼭대기에 올릴 하얀 산개는 이미 며칠 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다. 장원의 연못에서 동트기 전에 하인들이 꺾어온 흰 연꽃은 아이의 어머니가 손수 세 개의 광주리에 나누어 담았다. 석류와 망고는 따로 챙겼다. 마을 어귀 거대한 사라수 나무 아래 있는 약샤 마니바드라 신상도, 시냇가에 세워진 나가 사당도 그냥 지나칠 수 없기 때문이다. 상인들의 수호신인 마니바드라와 비와 강을 다스리는 나가의 가호는 이 가족에게 언제나 절실했다. 자스민이나 금잔화로 엮은 꽃줄은 사원 근처의 시장에서 살 것이다.

성공한 향유 상인인 아이의 할아버지는 특히 백단향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다. 그는 최고급 백단 향유를 제조하는 장인들과 일했고 데칸고원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크리슈나강과 그 지류들이 지나는 수많은 도시의 시장과 사원에 백단 향유를 공급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백단향 숲은 오래전 저 위대한 아쇼카 대왕이 나무를 함부로 베지 말고 숲을 보존하라는 명을 내린 이후로 몇 배나 더 넓어졌다. 하지만 사업이 커지고 특히나 로마 상인들에게 향유를 공급하기 시작하자 좋은 백단 껍질은 늘 더 필요했기 때문에 아이의 아버지와 삼촌은 먼 지역을 여행하며 다른 지방의 공급업자들을 관리하느라 집을 떠날 때가 많았다.

이른 아침, 온갖 새들이 서로 다른 소리로 우짖는 소리를 들으며 아이는 어머니와 함께 가마에 올랐다. 어머니가 두른 은사가 섞인 하늘색 모슬린 사리는 벵골 지방의 장인들이 만든 최상품이고 손목의 팔찌는 홍해에서 나는 붉은 산호로 로마에서 들여오는 인기 품목의 하나였다. 소가 끄는 수레가 준비한 공물을 싣고 출발하자 다섯 하인과 두 하녀가 뒤따랐다. 할아버지는 쌀과 가장 최근에 생산한 향유를 말이 끄는 수레에 싣고, 주로 거처하시는 별채에서 출발했다. 며칠 후면 스투파 대축제가 시작될 것이다. 아이는 올해도 그 유명한 곡예사 두바차와 가족들이 와서 대담한 묘기를 보여줄지, 씨름 대회에서는 누가 우승을 해서 스투파 꼭대기의 찰주에 깃발을 다는 영광을 누릴지 생각하느라 마음이 분주했다.



불교 후원자의 초상, 인도 뉴델리국립박물관

거대한 두 물줄기인 크리슈나강과 비마강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성스러운 땅에 자리 잡은 사원은 아이가 사는 마을에서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거리에 있었다. 거대한 스투파와 기념 석주들과 의례용 문(토라나)들은 멀리서도 그 위용이 대단했다. 승려들이 거주하는 공간, 원형의 사당, 회당을 비롯한 건물들이 스투파를 둘러 있었다. 아이는 이 아름다운 사원에 올 때마다 부처님의 사리에 대해 어머니의 설명을 듣는 것을 좋아했다. "오래전에 세존께서 쿠시나가라의 두 그루 사라수 사이에서 숨을 거두시자 제자들은 슬퍼하며 그분의 시신을 화장했단다. 그 후에 주변의 여덟 나라들이 사절을 보내어 그 귀한 사리를 받아 갔고 저마다 스투파를 지어 그 안에 사리를 모셨어. 수정으로 만든 아름다운 병과 보석으로 장식한 항아리에 담아서 말이야. 사리를 보는 것은 곧 부처님을 보는 것이란다. 이 아름다운 스투파 안에 부처님의 사리가 있으니 우리는 이곳에서 그분을 뵙고 공양을 드릴 수 있지."

빈 자리를 향한 경배, 인도 뉴델리국립박물관

사원 경내에 들어서자 꽃향기와 백단향과 나드 향기가 일행을 감쌌다. 보시를 받아서 창고로 들이는 일을 맡은 승려들이 하인들을 도와 짐을 내리고 내역을 꼼꼼히 기록했다. 그 중 젊은 승려 한 사람이 산개를 받아 들고 스투파 위로 올라가서 활짝 펼쳐 설치했다. 어머니가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스투파 위로 산개를 올리는 것은 따가운 햇살과 바람으로부터 부처님의 사리를 보호하는 훌륭한 일이지. 산개를 드리는 사람은 백성을 재앙으로부터 보호하는 군주로 환생한단다." 그사이 연락을 받은 주지 스님이 직접 나와서 인사를 하고 아이의 할아버지와 함께 건물 중 하나로 사라졌다. 할아버지는 이 사원의 중요한 시주자 중 하나였으며 주지 스님과는 오랜 친구이기도 했다. 하인들도 돌아갈 때까지 자유롭게 사원에서 예불을 드리기 위해 흩어졌다.

아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스투파 정면에 서있는 토라나를 통과하여 탑돌이를 위한 회랑으로 들어섰다. 스투파의 몸체 아랫단과 이를 둘러싼 울타리는 석가모니 부처의 생애와 전생 이야기들을 표현한 아름다운 부조로 장식되어 있다. 아쇼카 대왕 치세 동안 마우리아 제국 전역에 세워진 스투파들은 시간이 흐르며 대규모 보시가 있을 때마다 증축이 되었는데, 이 스투파도 마찬가지였다. 벽면의 부조들은 그 때마다 새로 배치되며 그 수가 늘어났다. 학식이 뛰어난 승려들의 지시에 따라 숙련된 장인과 석공들이 석판에 추가적인 이야기를 담았다. 아이는 불족적이나 보리수 아래의 빈 대좌와 같은 다양한 상징이 부처의 모습을 대신하는 부조들 앞에서 그 의미를 읽어내는 일을 즐거워했다. "얘야, 이 조각 속에 부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행동하면 안된다. 석공이 일부러 표시하지 않았을 뿐, 그분은 지금 여기 계신 거야."

손대고 싶은 스투파, 인도 뉴델리국립박물관

시계 방향으로 스투파를 돌던 모자는 울타리의 육각기둥 앞에 멈춰 섰다.
"나가왕 무찰린다! 여기에도 있었네요! 보드가야에서 부처님이 선정에 든 후 폭풍우가 몰아치자 무찰린다가 다가와서 똬리를 틀고 다섯 개의 머리로 부처님을 보호해드렸죠. 살아있는 산개가 되어 드린 셈이에요!"

어머니는 아이를 이끌고 회반죽 그릇이 있는 곳으로 가서 가져온 백단 향유를 떨어뜨려 섞었다. 두 사람은 양 손에 향기나는 반죽을 넉넉히 바르고 스투파에 조심스레 손자국을 남겼다. 어머니가 가족들의 안전과 사업의 번창을 빌고, 비를 몰아오는 계절풍이 제때 시작되면서도 홍수는 나지 않기를 기원하고, 크리슈나강을 운행하는 배들을 지켜주시라고 기원하는 동안 아이는 자신이 외할아버지처럼 선장이 되어 먼 바다를 건너서 로마에까지 가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다.

승려들은 보시 받은 꽃줄로 스투파를 장식하고 축제용 깃발들을 꺼내서 꽂았다.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지역 주민만이 아니라 상당히 먼 곳에서도 참배객들이 모여들 것이다. 존경받는 승려들의 설법을 듣고 나면, 왕실의 여인 중 한 분이 보시한 새로운 석주가 세워질 것이다. 다양한 상인들과 선주들에게는 교류의 시간이 될 것이고, 사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며칠 동안 후하게 음식을 대접받을 것이다. 생화와 향유가 뿜어내는 향기는 승려들의 암송 소리에 섞여들 것이며 밤마다 밝히는 수많은 등불 덕에 일대는 며칠 동안 어둠이 없을 것이다. 할아버지는 여행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기도문을 적은 종려잎 부적들을 새로 받아 품에 넣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아이에게 세존께서 전생에 상인이었을 적에 숲 속에 숨어있는 도적떼를 신통력으로 막아 내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리를 담았던 귀한 단지, 영국 빅토리아·앨버트박물관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우아한 돌Elegant Stones》展 [4.18-6.22]

장준구
이천시립월전미술관 학예연구실장/ 홍익대학교 미술사학과 겸임교수

이천시립월전미술관에서 4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 기획전 《우아한 돌Elegant Stones》이 개최된다. 돌을 주제로 다룬 한국화 장르의 그림을 한자리에 모았다. 작고 작가인 장우성(1912-2005), 정탁영(1937-2012), 임송희(1938-2022) 그리고 원로작가 오용길을 비롯하여 이은숙, 이창희, 이종민, 정해윤, 조인호, 박경묵, 손선경, 이윤진, 이호억, 소미정 등 한국화 분야의 중견 · 신진작가 총 14명의 돌 그림이 망라된다. 돌이라는 단일한 주제가 다양한 세대, 다양한 배경 그리고 다양한 표현방식을 지닌 화가들에 의해 어떻게 재현되었는지 살펴본다.

기이한 돌을 좋아하여 돌을 형兄이라고 불렀던 중국 북송대北宋代의 서화가 미불米芾(1051-1107)의 유명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돌에 대한 관심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미불과 동시대의 인물인 북송대의 8대 황제 휘종徽宗(재위 1100-1125) 조길趙佶의 경우 간악艮嶽이라는 정원을 만들고 그곳을 진귀한 돌로 꾸몄다. 특히 중국 남방의 도시 소주蘇州의 유명한 호수인 태호太湖에서 건져 올린 기이한 모습의 태호석太湖石은 휘종이 가장 좋아한 돌이었다. 이러한 황제와 지식인의 돌에 대한 애호는 이후 점차 확산되었다. 중국과 한국의 옛 그림 속 정원 혹은 가옥 한 켠에 종종 보이는 독특한 돌은 바로 이에 대한 반향이다.

그림1. 정학교, <괴석도>, 조선후기, 비단에 수묵채색, 142.5x31.6cm, 국립중앙박물관

이후 돌에 대한 애호가 더욱 확산되면서 돌만을 주된 소재로 삼은 괴석도怪石圖가 등장했다. 중국 청대(淸代)의 주당朱棠(1806-1876), 조선 말기의 정학교丁學敎(1832-1914) 등 돌 그림으로 특화된 화가가 등장한 것은 이러한 결과였다(그림1). 이토록 돌이 관심을 얻었던 것은 '불변不變'이라는 특유의 속성이 흔들림 없는 인격의 소유자인 군자君子의 상징으로 혹은 늙지 않고 오래 사는 장수長壽의 은유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또한 돌 자체의 모습에서 보이는 독특한 아름다움도 인기의 중요한 비결이었다.

그림2. 장우성, <돌>, 1998, 종이에 수묵, 69x41cm, 69x41cm,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이러한 돌에 대한 관심은 20세기에도 지속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문화적 맥락과 환경이 전혀 달라진 상황 속에서 돌에 대한 인식도, 표현도 크게 변했다. 《우아한 돌》을 통해 이러한 달라진 시대성이 반영된 다양한 돌 그림과 만나볼 수 있다.

장우성, 정탁영, 임송희는 과거의 회화를 토대로 완만한 변화를 가미한 작품을 보여준다. 장우성의 <돌>(그림2)은 실제 돌에 대한 사생을 기반으로 한 작품이다. 『십죽재서화보十竹齋書畵譜』나 『개자원화전芥子園畵傳』 등 명, 청대의 판화 이미지를 토대로 스테레오타입화한 돌 그림이 주로 그려졌던 과거와 달라진 것이다. 그러면서도 변화감이 큰 먹의 선, 산뜻한 담채의 효과, 시와 글씨와 그림을 하나로 아우른 형식은 이전의 전통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다. 일종의 신구조화적 돌 그림이라 할 수 있다.

그림3. 오용길, <화성-성벽I>, 2014년, 종이에 수묵채색 210x110cm

오용길, 이창희, 이종민은 석벽石壁의 아름다움을 그림으로 옮겼다. 오용길은 화성華城의 수많은 장소들 가운데 성벽의 돌에 보이는 독특한 시각성을 화폭에 담았다(그림3). 불규칙한 형태와 조금씩 다른 색을 가진 사각형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성벽은 투박한 듯, 그렇지만 정교하게 가공된 돌들이 기하학적인 미감을 선사한다. 이종민은 <햇살-치마바위>(그림4)과 같은 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 석벽을 연상시키는 표현방식을 구사한다. 절벽의 한 부분을 포착, 클로즈업하여 그 시각적, 물질적 특징을 최대한 실제에 가깝게 재현했다.

이은숙, 조인호, 이호억, 소미정은 수묵화의 특징과 표현방식을 토대로 각자의 주관이 반영된 돌 그림을 그렸다. 조인호는 먹의 세필細筆로 커다란 화면 가득 요동치는 듯한 암벽을 그렸는데, 이는 현실에서 작가가 느끼는 갈등의 반영적 표현이다(그림5). 이호억은 물기가 적은 까칠한 갈필渴筆로 오랜 세월의 풍화작용을 통해 마치 뼈만 남은 것 같은 독특한 미감의 바위를 그렸다(그림6). 소미정은 돌을 갈아서 이를 먹처럼 사용한 작품을 그리는데, 화면에는 갈기 전 돌의 형상과 간 돌을 안료로 그린 돌의 형상이 동시에 표현된다. 돌이 가루로 이것이 다시 돌 형상의 그림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 오랜 시간을 두고 순환하는 자연과 만물의 속성을 나타내고자 했다(그림7).

그림5. 조인호, <흩어진 마음-돌>, 2023년, 종이에 수묵, 190x390cm

그림4. 이종민, <햇살-치마바위>, 2021년, 흙벽지 위에 채색과 토분, 55x40cm

그림6. 이호억, <바람의 벼 IV>, 2020년, 종이에 수묵, 138x70cm

그림7. 소미정, <무엇이 무엇으로>, 2021년, 종이에 돌가루, 136x109cm

정해윤, 박경묵, 손선경, 이윤진은 각자의 방식으로 시각성과 장식성이 강조된 돌 그림을 그렸다. 정해윤은 세밀한 묘사를 통해 실물과도 같은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돌무더기를 그렸다. 한국화의 채색 안료를 이용한 것이지만 사진과 유사한 느낌을 주는 화면을 보여준다(그림8). 박경묵은 종이 위에 수십 겹의 먹을 덧입혀 돌의 질박한 표면을 재현했으며(그림9), 이윤진은 얇은 먹선을 거미줄 이어지듯 수도 없이 긋고 연결해서 정갈한 형상의 부유하는 듯한 돌을 그렸다(그림10). 손선경은 반복 재생 애니메이션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짓누르는 근심거리를 시소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서 돌을 안고 있는 소녀의 모습으로 나타냈다(그림11). 영상 매체를 이용한 것이지만 종이 위에 먹의 윤곽선만으로 형상을 그려내는 동아시아 전래의 백묘白描 전통에 근간한 것으로 오늘날 한국화 혹은 수묵채색화의 경계 확장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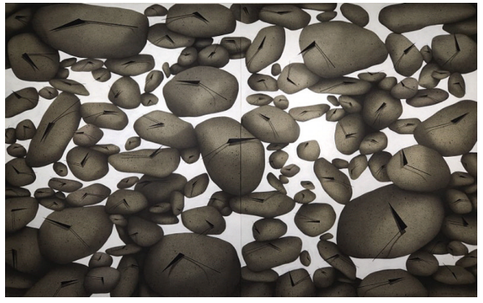


그림8. 정해윤, <Playground of Life>, 2016년, 종이에 채색, 227x364cm

그림10. 이윤진, <정중동靜中動-고요함 속의 움직임>, 2022년, 종이에 수묵, 74x142.5cm

그림9. 박경묵, <still rock1011>, 2023년, 종이에 수묵, 92x6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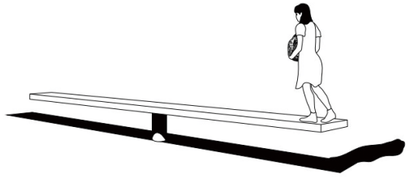


그림11. 손선경, <불안의 무게: 돌을 든 소녀1>, 2020년, 연속재생애니메이션 비디오 74x142.5cm

이처럼 기획전《우아한 돌》은 돌을 주제로 한 오늘날 한국화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준다. 괴석도 등 과거의 돌 그림에서는 볼 수 없었던 표현방식과 성격은 그 넓은 스펙트럼을 시사해준다. 돌이라는 주제 그리고 한국화라는 장르를 매개로 한국 미술의 전통과 변화 그리고 앞으로의 전개도 살펴볼 수 있는 전시이다.

그림12.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전경

《우아한 돌》이 개최되는 이천시립월전미술관(그림12)은 국내 유일의 한국화 특화 미술관이다. 이천시립월전미술관은 20세기 후반 한국화 장르의 대표적 작가 가운데 한 명인 장우성의 작품 및 소장품 1,532점의 기증을 기반으로 2007년에 문을 열었다. '월전月田'은 작가 장우성의 아호이다. 이천시립월전미술관은 개관이후 현재까지 전시, 연구, 교육을 통해 작가 장우성의 작품세계와 함께 한국화 분야의 조명 및 진흥을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개념적으로 한국화는 조선시대 수묵채색화로 그 기원이 소급되는 오늘날의 수묵채색화 혹은 수묵채색화의 표현방식, 조형성을 기반으로 한 평면 작업을 지칭한다. 20세기 후반 한동안은 동양화로 불리면서 전성기를 구가하기도 했지만 현재의 위상은 높지 못하다. 전통 미술도 아니고 현대 미술도 아니라는 시각을 통해 이중으로 소외되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한국화의 재료와 특유의 기법과 특유의 조형미를 토대로 작업을 하는 작가들은 많다. 여타 장르와 비교했을 때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밀리지 않는다.

이천시립월전미술관은 바로 이러한 한국화의 장점과 아름다움을 조명하고 밝히는 역할을 지금껏 해왔다. 한국화 분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장우성의 작품세계를 장르별로 조명하는 전시와 박노수(1927-2013), 장운상(1926-1982), 이규선(1938-), 임송희(1938-2022), 하태진(1938-), 오태학(1938-), 장상의(1940-), 송계일(1941-), 이석구(1942-) 등 원로작가들의 작품세계를 아우르는 회고 전시는 각 작가들의 작품세계의 아름다움을 선보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20세기 후반 한국화의 역사를 정리하고 아카이빙한다는 의의도 지닌다. 여타 미술관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작업이기에 개별적이고 또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백두산 그림, 금강산 그림, 춤 그림, 도원 그림(그림13) 등 특정 소재를 테마로 원로, 중진, 중견,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은 전시를 통해 한국화의 다양성, 특징, 장점 등을 조명하고 선보여왔다. 기획전《우아한 돌》역시 이천시립월전미술관의 이러한 오랜 장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조선시대에 유행했거나 혹은 희소하게 그려졌던 소재의 그림들이 오늘날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는 이러한 주제전은 한국미술의 종적 전개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의미 깊다. 거기에 더해 이천시립월전미술관은 한국화 장르를 테마로 한 월전학술포럼이라는 학술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그 결과물을 단행본 논문집으로 출간해왔다. 한국화의 조명 및 진흥을 위한 학술연구 베이스도 구축해온 셈이다.

그림13. 장우성, <도원桃源>, 1979년, 종이에 수묵채색, 92.7x136.5cm, 개인소장

이처럼 소외된 한국화를 조명하고 진흥하는 것은 이천시립월전미술관의 가장 중요한 설립 취지이자 목적 가운데 하나로 작가 장우성이 생전에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 가운데 하나였다. 이천시립월전미술관은 한국화가 한국미술에 있어서 제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전시, 연구, 교육 활동을 진행해왔으며, 앞으로도 이를 지속할 것이다.

동해안의 대 고을, 江陵

소재구 전 국립고궁박물관장

대한민국 영토의 등줄을 이루는 백두대간의 산맥이 반도 동해안을 따라 길게 뻗어 이른바 태백산맥을 이룬다. 북쪽의 금강산부터 남쪽의 태백산에 이르는 길고 긴 이 산줄기는 태곳적부터 강원도의 내륙과 해안을 분리하는 지맥이 되어 오늘날까지도 영동과 영서의 역사와 문화를 달리해 온 지리적 환경을 만들었다.

비록 땅덩이는 좁았지만 영서 땅보다 기후가 따뜻하고 산과 바다에서 얻는 것이 많아 이 지역에 사람이 살게 된 역사는 놀랄 만큼 빠르다. 고성 문암리의 경작지 유적과 양양 오산리의 유적 등은 국내에서 가장 오랜 신석기 유적으로 판명되어 신석기시대 이후 사실상 우리 역사는 동해안이 오히려 내륙보다 앞섰다는 사실이 바로 이를 증명해 준다.

그리하여 동해안에는 양양, 강릉, 삼척 등지에 옛 고을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그중에서도 가장 중심적 역할을 한 곳은 바로 강릉이었다. 또한 현재의 강릉은 행정구역상 강원도 강릉시에 국한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그 영역이 북방으로는 금강산으로부터 고성, 양양에 이르고 남방으로는 삼척을 지나 울진, 영덕까지 포함될 정도로 길고 긴 해안 지역이었다.

오대산 중대(사자암) ⓒ 강릉시청 제공

옛 기록에 의하면 강릉은 삼국시대 이전의 부족연맹국가 시절에 예(濊)국 또는 하슬라국(何瑟羅國, 강릉, 울진 지역)의 중심 고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시대 이후에는 먼저 고구려에 복속되어 '하서량(河西良)'이라 불리고 후에 신라의 영토가 되어 지증왕 13년(512)에는 '하슬라주(河瑟羅州)'가 되었다. 그 후 진흥왕은 금강산 이북까지 영토를 늘렸고 선덕여왕 8년(639)에는 이곳에 북소경(北小京)이 설치될 정도로 성장하였다.

또한 통일신라시대 경덕왕 때에는 '명주(溟州')라 불리면서 영서의 삭주(朔州, 춘천)와 어깨를 견주는 영동의 대 고을이 되었으며,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고을이 더욱 성장하여 강릉대도호부(江陵大都護府)란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후 강릉부(1895), 강릉면(1917), 강릉읍(1931), 강릉시(1955)와 명주군, 강릉시(1995) 등으로 개칭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삼국시대 이후 강릉을 역사적 무대에 등장시킨 인물은 뜻밖에도 고승 자장율사(慈藏律師)였다. 그는 진골 출신으로 처자를 버리고 불가에 입문하여 명승이 되었다. 왕의 신임을 얻어 선덕여왕 5년(636)에는 당 나라에 유학, 7년 동안 오대산에서 수행하며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가사와 사리를 받아 선덕여왕 12년(643)에 귀국하였다. 그 후 승려의 최상위인 대국통(大國統)이 되었으며 황룡사 구층 목탑의 창건을 주도한 인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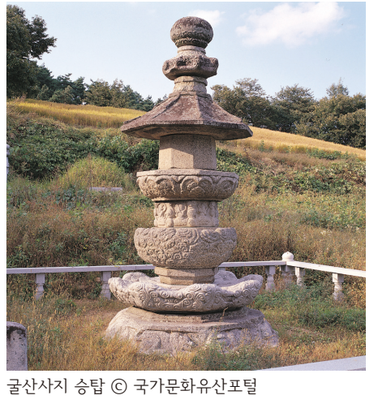
이러한 최상위 승려가 어찌하여 왕도 경주를 등지고 강릉 오대산을 찾아왔는가? 그는 궁정에서 선덕여왕계가 실각하고 무열왕계가 성장함에 따라 경주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이에 새로운 수도처로 찾은 곳이 바로 강릉 땅 부근의 명산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곳에 중국과 똑같이 5방 5처에 절을 짓고 문수도량의 수도처를 만들었는데 이곳이 바로 지금의 평창 오대산이다. 이처럼 자장율사는 실각된 교단의 재기를 강릉에서 도모하였는데 이는 훗날 강릉지방에 불교문화가 크게 일어나는 기반이 되었다.

강릉은 자장율사가 택할 만큼 경주 다음가는 큰 고을이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통일신라시대 후기에 강릉에서는 또 한 번의 왕족 망명사건이 일어났다. 원래 신라 왕가는 예전부터 내물왕계가 대대손손 왕업을 이어왔는데 삼국통일 이후부터는 문무왕, 신문왕, 성덕왕, 경덕왕 등의 무열왕계로 바뀌었다. 그런데 원성왕 이후 다시 내물왕계가 왕권을 쥐자 무열왕계는 정치적 보복을 피하고 훗날의 재기를 위하여 택한 곳이 강릉이었는데 그 역사적 주인공이 바로 강릉 김씨의 시조 김주원(金周元)이다.

명주군왕릉(강릉 김씨 시조묘)

그 후 강릉 김씨는 강원도 전역은 물론 경기도 일부까지 세력을 확장시키며 통일신라 후기의 호족 제 1호로 부상하였으며 후삼국시대에도 마지막까지 존속하며 그 기세를 꺾지 않다가 왕건의 설득으로 고려에 귀의하였다. 또한 강릉 김씨 호족은 양양 진전사, 강릉의 굴산사와 보현사, 여주 고달사 등 고대 한국사의 쟁쟁한 불교 종단을 후원하였다. 결국 강릉에서는 한국 불교사에 빛나는 두 인물을 배출하였는데 그들이 바로 강릉 굴산사 범일국사의 법통을 이어 고려에 조계종을 창시한 보조국사 지눌(知訥)과 양양 진전사의 법통을 계승하고 고려 말에 『삼국유사』를 저술한 보각국사 일연(一然)이다.

특히 굴산사에서 사굴산문(闍崛山門)이란 선종 교단을 일으킨 범일국사(梵日國師)는 그의 어머니가 옹달샘에 태 양이 비친 샘물을 떠먹고 잉태하여 태어났다. 훗날 중국 유학시절에 한 쪽 귀가 없는 동향의 사미승을 만나 귀국 하거든 꼭 그의 고향에 절을 지어줄 것을 약속하였는데 귀국 후 그 사미승이 살던 동네의 샘가에서 귀 없는 보살 상을 찾게 되어 지난날 그 사미승이 바로 정취보살이란 것을 뒤늦게 깨닫고 절을 지었다고 한다. 일설에는 그 절 이 낙산사라고 하나 실제로 강릉 굴산사 터에 가보면 최근까지도 절터 한가운데에 옹달샘이 있고 샘가에는 귀 없 는 석조보살상이 있었다. 지금도 굴산사 터에서는 황룡사에 버금가는 엄청난 사역이 발굴조사 중이며 뒤편 언덕에 는 화려하고 독특한 범일국사 묘탑이 세워져 있고 멀리 반대편 들녘에는 굴산사 입구를 알리는 석조 당간지주가 서 있다.


굴산사지 승탑 ⓒ 국가문화유산포털

굴산사지 당간지주(보물)

굴산사터 샘가의 보살상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그러나 찬란했던 굴산사는 후삼국기에 들어 궁예의 침입으로 불바다가 되고 그의 법맥을 이은 낭원대사는 급기야 오대산 보현사로 거처를 옮겼다. 지금도 그곳에는 대사를 기리는 묘탑과 탑비가 세워져 있는데 아무래도 후삼국기의 어지러운 세상을 겪다보니 묘탑과 탑비의 조형성이 예전 같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강릉의 불교문화는 고려 건국 후 다시 부활하였으며 이러한 정황은 신복사지 삼층석탑,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등 고려 전기 강릉지역만이 지닌 독특한 조형성을 보여주는 국보급 석탑이 증명해준다. 동시에 이 석탑들은 높은 보관을 쓴 공양보살과 짝을 이루고 있어 이러한 배치법 또한 강릉 지방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다.

강릉 신복사지 삼층석탑(고려초, 보물)

평창 월정사 팔각구층석탑(고려전기)

조선시대에 들어 강릉은 한국을 빛낸 두 여인상이 살았던 고장으로 기억된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신사임당(申師任堂, 1504-1551)이다. 그는 조선 성리학의 대학자 율곡 이이(李珥)의 어머니로서 추앙되며 시, 서, 화에 능하여 지금도 수준 높은 유작들이 전해지고 있다. 신사임당은 율곡의 부친이 수운판관(水運判官)을 지내던 당시 율곡과 함께 한때 평창 백옥포에서 살았던 적도 있다.

강릉 오죽헌은 신사임당의 생가이며 율곡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다. 신사임당은 아들이 없는 가정의 맏딸로 태어나 혼인 후에도 한때 친정살이를 한 까닭에 지금도 사임당의 시문 중에는 그가 친정을 그리는 「사친(思親)」이란 시가 널리 알려져 있다.

강릉을 빛낸 두 번째 여성은 바로 허난설헌(許蘭雪軒, 1563-1589)인데 이 여인은 『홍길동전』의 저자로 유명한 조선 후기의 문관 허균의 누님이기도 하다. 특히 허난설헌은 시와 문장이 뛰어나 그의 시문집인 『난설헌집』은 중국

강릉 오죽헌(사적)

강릉 허난설헌, 허균 생가(문화재자료)

의 문신들이 칭송할 정도였다. 그러나 여기에는 애틋한 사연이 있다. 허난설헌은 외롭고 서러운 혼인생활을 하였고 그나마 스물두 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유언에 따라 대부분의 글이 소각되었는데 훗날 동생 허균이 남아 있는 유작(遺作)을 거두어 보관했다가 중국 명나라의 사신 주지번朱之蕃)에게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연으로 허난설헌의 문집은 그녀의 사후 18년 만에 타국인 중국에서 출간되었다.

강릉은 역사 이래 동해안 제일의 고을이었다. 뿐만 아니라 태백산맥 너머 동해안에 치우쳐 왕도에서 멀리 떨어진 관계로 난세에도 화가 덜 미치는 천혜의 고장이었던 것 같다. 그리하여 자장율사, 강릉 김씨 등이 열세에서도 독자적 활약을 도모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러한 정세는 조선시대에도 화를 면하는 행운을 가져왔다. 즉 강릉은 임진왜란의 피해가 전혀 없었던 고장이라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강릉 객사 터에 남아 있는 임영관 삼문은 임진왜란의 병화를 피한 고려 말 조선 초의 국보급 목조건축물이다. 고전적 전통 목조건축물의 구조특징 중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기둥의 중간부위가 배부른 듯한 특징을 지닌 배흘림기둥이다. 또한 그 위로 지붕을 떠받치는 간결하고 우아한 들보, 서까래와 들보를 받치는 각종 부재들이 간결한 짜맞춤과 단위 부재의 꼼꼼한 조형성으로 고전미를 물씬 풍기는데 이러한 조형적 기품과 특징을 강릉 임영관의 삼문이 잘 보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강릉 고을의 문화 중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강릉 단오제'이다. 이 민속행사는 국가중요무형문화재인 동시에 세계 문화유산이다. 강릉의 불교문화를 크게 일으킨 범일국사는 훗날 대관령의 산신으로 추앙되어 단오제에서 받드는 최고의 신이 되었다. 이 단오제는 음역 3월 21일부터 시작되어 단오 다음날인 음력 5월 6일까지 약 50일간 진행되는 민속 행사로 비록 그 원조는 중국이지만 훨씬 더 전통적 한국적 세부내용을 보전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또한 강릉 고을이 지닌 역사 지리적 요건이 오랜 세월동안 문화의 보전을 유지할 수 있는 힘으로 존재하여 왔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강릉 임영관 삼문(객사문, 고려 말, 조선초)

강릉 단오제(국가무형문화재, 세계무형유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唐文書가 부착된 삿자리의 복원
-吐魯番文書 및 大谷文書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권영우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한·중·일로 흩어진 삿자리 문서

국립중앙박물관(이하 국박)의 소장품 중에는 당唐 관문서官文書에 둘러싸인 삿자리가 있다(도1). 이것은 1912년 일본 오타니大谷탐험대에 의해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투르판吐魯番의 아스타나阿斯塔那 230호묘에서 수습되었으며 시신을 눕혔던 깔개 또는 장의용구의 일종으로 추정된다. 공교롭게도 이 삿자리에 부착된 문서와 같은 문서의 일부는 현재 일본 류코쿠대학龍谷大學과 중국 신장박물관新疆博物館에도 소장되어 있다. 한·중·일에 분산된 문서 조각은 원래 한 두루마리案卷에서 재단되어 삿자리에 부착된 채로 부장되었던 것이나, 20세기 초에 탐험대에 의해 일본으로 반출되었고, 머지않아 재차 한국과 일본으로 분산되었다. 그리고 무덤에 있던 나머지가 1972년 중국 측에 의해 발견되었다.

도1. 당문서가 부착된 삿자리(문서 분리 전), 투르판 아스타나 230호묘, 당 703년 매장, 대편(좌) 16.0×48.5cm, 소편(우) 20.0×23.5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구획: 직물편 부착 위치, 화살표: 문서 진행 방향, 필자 표시)

문서의 정체

연구자들은 중·일 소장 문서편의 정체가 '당 상서성尙書省이 하달한 의봉儀鳳4년(679)도 국가재정 운용지침을, 당이 투르판을 점령하고 설치한 서주도독부西州都督府에서 접수하여 처리한 문서唐儀鳳三年度支奏抄·四年金部旨符'(이하 「탁지주초」)임을 밝혀냈다. 문서에는 최전성기를 구가하던 당나라가 전국을 대상으로 용庸·조調라는 국가 세수를 운용했던 실태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상당수가 이제껏 여타 사료에서 볼 수 없었던 내용이었기에 학계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당 전기 국가재정사의 사료 부족을 메우는 1급 사료로 자리매김했다.

1995년 국내에도 관련 문서가 소장되어 있음이 공표되었다. 민병훈은 삿자리 문서 뒷면에 비친 내용을 해석한 뒤 이 문서가 바로 중·일 측 문서편과 같은 「탁지주초」의 일부임을 지적했다. 하지만 문서는 글씨 면이 안쪽을 향해 붙어 있고 접혀 있던 까닭에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2020년 국박 연구팀은 삿자리의 문서가 분산된 문서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문서의 분리 조사를 단행했다.

문서의 분리 조사와 국박 소장 삿자리의 원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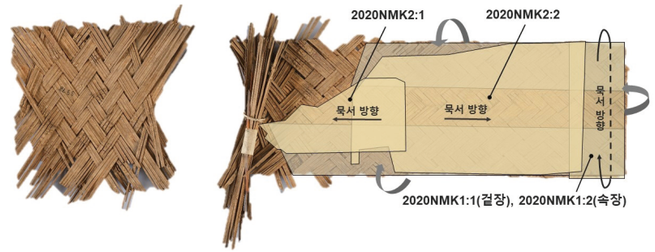
「탁지주초」는 삿자리 대편의 a면 전체를 덮은 뒤 나머지가 b면까지 접혀 올라간 모습으로 부착되어 있었다(도2). 그리고 b면 「탁지주초」가 접힌 부분에는 문서편 2매가 겹쳐 붙어 있었다. 분리 결과 2종 4매의 문서편이 수습되었다. 「탁지주초」는 겉장과 더불어 속장이 드러났고, b면을 덮고 있던 2매는 또 다른 종류의 문서였다.

국박 「탁지주초」 2매(2020NMK1:1·2)는 중국 측 2매(72TAM230:46/1·2)와 완벽히 접속되는 것을 확인했다(도3). 문서의 분리와 접합으로 인해 새로운 조문이 드러났으며 불완전했던 기존 조문을 보완할 수 있었다. 별종의 문서인 「당 상원연간(674~676) 서주 창조사 안권 위 고창현 신송 도주위사 용설가전사唐上元年間西州倉曹司案卷爲高昌縣申送逃走衛士庸 價錢事」(이하 「도주위사안권」)도 중국 측 문서 72TAM230:62·63 및 72TAM230:80/4·9·10과 같은 문서인 것을 확인했으며, 그중 2020NMK2:1과 72TAM230:62, 72TAM230:80/4·9·10은 접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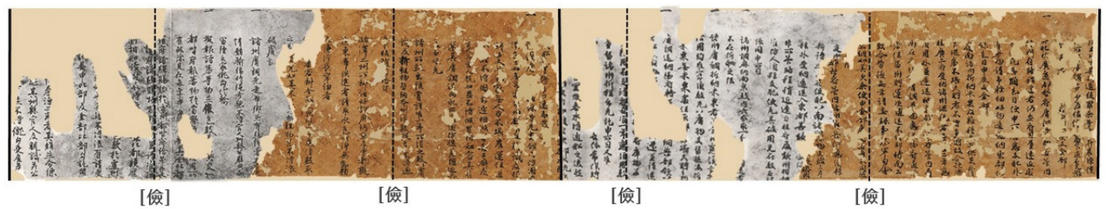
또한 「도주위사안권」의 작성 시기에 대해, 문서에 판관判官으로 등장하는 서주도독부 창조참군倉曹參軍 '원리元利'를 투르판 바다무巴達木 출토 문서 2004TBM207:1-12에 적힌 '장원리張元利'와 동일인임을 확인하여, 「도주위사안권」의 작성 시기는 그 문서를 통해 알 수 있는 그의 창조참

군 재임 기간, 즉 상원연간(674~676)으로 고증했다. 따라서 한·중 소장 문서편은 670년대 중후반에 서주도독부 창조사가 생산한 「탁지주초」와 「도주위사안권」에 해당하며, 본래 국박 소장 삿자리에 부착되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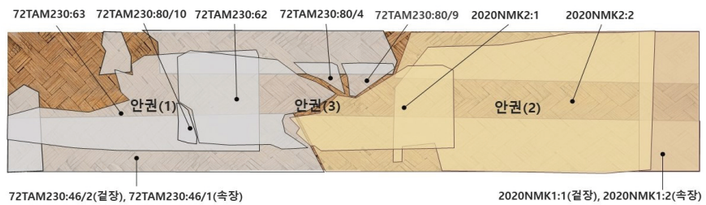
이상의 추론을 토대로 국박과 중국 측 문서편의 접속 형태, 접속된 문서편의 크기, 삿자리 상의 배접 구조와 순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 상태의 문서편이 온전한 삿자리에 배접된 모습은 다음의 도해와 같이 재현할 수 있다(도4). 게다가 문서가 붙은 삿자리 양면의 테두리를 따라 붙어 있는 자색 직물綺의 흔적은 이것이 삿자리의 마감재로 쓰였음을 시사한다. 지금까지의 이해를 바탕으로 국박 소장 삿자리 원형의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이 복원된다(도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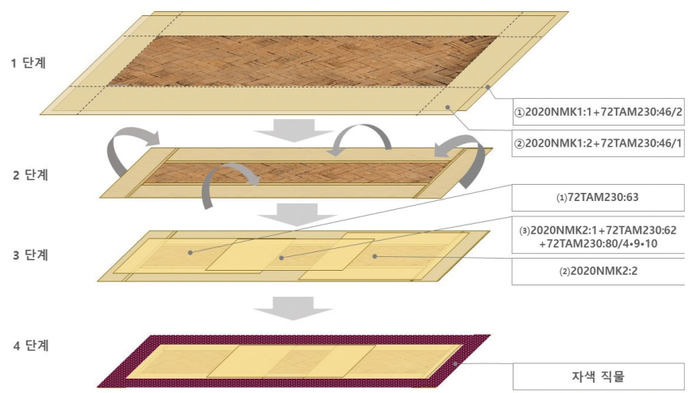
도2. 국박 소장 삿자리 b면의 문서 배접 구조 (필자 작성)



도3. 한·중 소장 「탁지주초」 문서편의 접속 (실선: 재단선, 점선: 접봉부, [儉]: 봉배서) (필자 작성)
*순서: 7T2AM230:46/1(속장) ← 2020NMK1:2(속장) ← 72TAM230:46/2(겉장) ← 2020NMK1:1(겉장)



도4. 국박 소장 삿자리 b면의 한·중 문서편 배접 형태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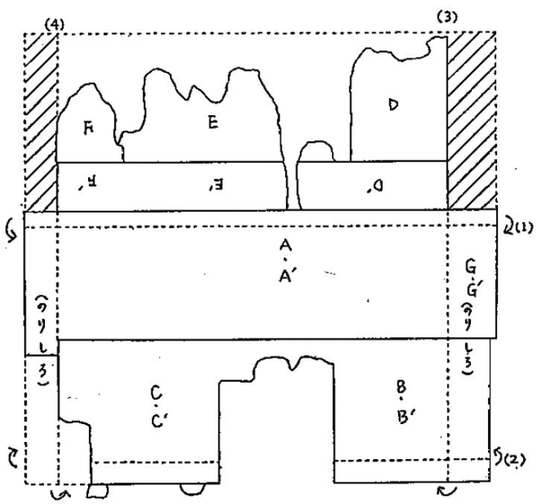
도5. 국박 소장 삿자리 원형의 제작 과정 (필자 작성)

류코쿠대학 소장 삿자리 문서군의 신복원안

그런데 류코쿠대학에는 한·중 문서의 약 3배에 달하는 삿자리 자국이 찍힌 86점의 문서가 소장되어 있다. 「탁지주초」에 속하는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2장이 겹친 채로 존재하며 현존하지 않는 또 다른 삿자리에 붙어 있던 것이 분명하나, 탈락되는 과정에서 파편화 된 것이다. 오쓰 도루大津透와 에노모토 준이치榎本淳一는 현 상태의 문서편들을 접속시켰고, 그 결과 문서는 「탁지주초」 안권에서 재단된 문서편 6장이 2장씩 겹쳐 상하 3열로 이어 붙은 형태로 복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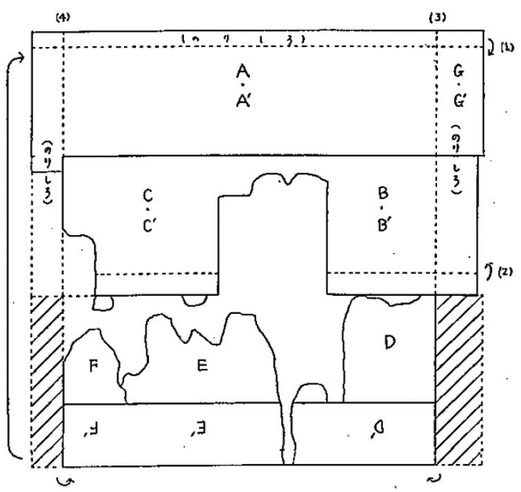
나아가 오쓰와 에노모토는 문서의 접힌 자국과 그 뒷면에 접힌 선을 따라 붙어 있는 자색 직물편에 근거하여 원형에 근접한 모습을 제2도로 제시했다(도6). 하지만 제2도의 모습은 본래의 배접 형태라기보다 탐험대가 수습 과정에서 벗겨 낸 문서를 운반의 편의를 위해 종이봉투 방식으로 재가공한 결과로 해석했다. 즉, 본래는 같은 길이로 재단된 문서편 3열이 위아래로 붙은 형태였지만 탐험대가 종이봉투로 만들기 위해 제1열의 양끝(도6의 빗금 부분)을 수 cm씩 떼어낸 뒤 제2·3열을 제2도의 점선(3)·(4)·(2)에서 접어 올리고 제1열을 점선(1)에서 안쪽으로 접어 붙인 것으로 추측했다. 그리고 제3열 B-C(B′-C′) 하단 뒷면에 붙은 소편 2점은 제1열 D-E-F의 상단에서 떨어져 나온 것으로 보고, 본래는 제3열 아래에 제1열이 붙어 있었으며, 제1열과 제2열 G-A(G′-A′)의 접합부야말로 탐험대가 재가공 시 인위적으로 붙인 것으로 보았다. 결과적으로 3열의 문서는 펼친 상태로 삿자리의 양면이 아닌 '한 면'에 부착되었던 것으로 보고 최종 복원안을 제3도로 제시했다(도7). 오쓰와 에노모토는 이 문서가 붙은 삿자리가 시신 깔개였다면 그 크기는 사람의 신장에 필적했을 것으로 보고 본래는 3열의 위아래에 문서가 추가로 붙어 현재 문서의 크기보다 세로가 더 길었을 것으로 주장했다.

第 2 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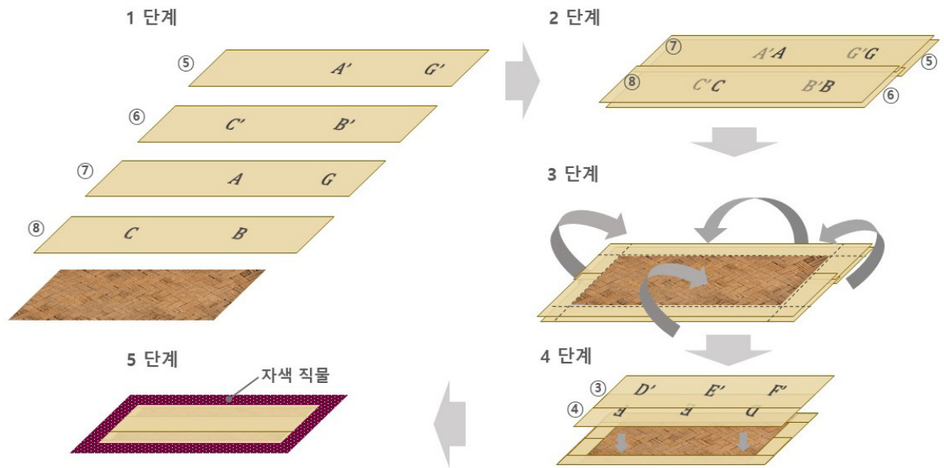
도6. 류코쿠대학 소장 「탁지주초」 문서편의 중간 복원 단계 (제2도) (오쓰·에노모토 작성)

第 3 図



도7. 류코쿠대학 소장 「탁지주초」 문서편의 최종 복원안 (제3도) (오쓰·에노모토 작성)

국박 삿자리의 문서 배접 방식에 기초하여 이 복원안을 재고하면 이 일본 측의 문서를 삿자리에서 펼친 모습은 제2도에 가까운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문서 뒷면에 접힌 선을 따라 남아 있는 자색 직물편은 삿자리의 윤곽선이자 원형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제1열과 2열의 간의 연접부는 반출 시의 인위적인 접합이 아니라 삿자리의 제작 단계에서 붙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제1열 D-E-F(F′-E′-D′)의 가로가 제2·3열보다 짧은 것은 탐험대가 봉투 형태로 만들기 위해 양끝을 떼어낸 것이 아니라, 제작 단계에서 삿자리의 한쪽 면을 덮기 위해 삿자리의 길이에 맞춰 안권에서 잘라냈기 때문이다. 이는 국박의 사례에서 「탁지주초」를 접어 올리고도 삿자리가 노출된 부분에 「도주위사안권」을 재단한 종이 3장을 차례로 덮어 마감한 방식과 흡사하다. 게다가 D-E-F와 F′-E′-D′가 완전히 포개지지 않고 약 10cm 정도 어긋나 붙어 있는 점도 삿자리의 노출된 부분을 가리기 위해 D-E-F를 먼저 덮은 다음, 그래도 가려지지 않은 부분에 F′-E′-D′를 붙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증을 종합하면 류코쿠대학 소장 문서편이 붙어 있었을 삿자리의 제작 방식은 다음의 도해처럼 나타낼 수 있다(도8).



도8. 류코쿠대학 소장 문서편이 부착된 삿자리의 제작 과정(신복원안) (필자 작성)

관문서를 재활용한 삿자리의 제작

본고에서 제시한 국박 소장 삿자리와 현존하지 않는 일본 측 삿자리의 제작 과정은 각 문서편이 배접 순서에 따라 안권에서 차례로 재단되어 활용된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 안권 상에서 문서편의 순서와 두 삿자리의 제작 순서를 비교하면 문서편을 「탁지주초」 안권의 끝에서부터 차례로 재단해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일본 측 문서가 붙어 있던 삿자리가 국박 소장 삿자리보다 먼저 만들어졌을 개연성을 방증한다. 또한 문서는 미리 재단해 놓은 것을 활용한 것이라기보다는 처음부터 삿자리의 크기를 감안하여 재단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문서편들의 재단면 간에는 결락 부분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한 번 재단한 종이를 재차 잘라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두 문서는 서주도독부 창조사에서 670년대 후반에 작성했으나 안건이 종료된 뒤 일정 기간 관청에서 보관하다가 문서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민간에 불하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702년 사망한 장예신張禮臣의 장의용구 재료로 탈바꿈했다. 먼저 「탁지주초」 안권의 끝에서부터 차례로 재단한 6매의 문서(일본 측)로 삿자리 하나를 만든 다음, 이어서 「탁지주초」 문서 2매(중국 측+한국 측)와 「도주위사안권」 3매(중국 측+한국 측)를 활용하여 보다 작은 국박 소장 삿자리를 만들어 아스타나 230호묘에 부장한 것이다.

그동안 문서편의 접속과 문서 내용 자체에 천착해 왔던 연구는 문서를 2차 가공한 삿자리라는 상장용품의 제작 관습에 대한 탐구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바로 지금 국박 소장 당문서가 부착된 삿자리는 향후 또 다른 연구의 시작을 알리는 실물 자료로서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조선후기 선원전 북벽 모란도 고찰

명세라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왕의 초상인 어진御眞을 봉안하고 제향하는 공간을 진전眞殿이라 한다. 진전은 종묘와 달리 왕이 살아 있을 때와 같이 섬기는 공간이었다. 열성어진을 모신 진전으로는 영희전永禧殿과 선원전璿源殿이 있는데, 영희전은 공덕이 높은 왕의 어진을 봉안한 국가사전國家祀典인 반면 창덕궁 궐내 위치한 선원전은 왕실 가묘家廟의 성격을 강하게 지닌 진전으로 혈통 중심의 어진을 모신 왕실 내부기관으로써 역할하였다. 이처럼 왕실혈통을 중심으로 한 선원전은 신실神室마다 당가唐家를 두고, 그 안에 어진을 모셨는데, 당가 장자障子에는 오봉도五峯圖를, 당가 뒤 북벽에는 모란도牧丹圖를 설치했다. 본 연구는 조선후기 선원전 북벽에 설치된 모란도에 집중하여 특징과 그 의미를 추정하였다.

조선후기 선원전에 모란도가 설치된 것은 늦어도 영조대라고 추정된다. 이는 1754년 1월 4일에 선원전 안으로 온돌의 연기가 새어 나와 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다. 「선원전중수기璿源殿重修記」를 보면, 선원전에 모란병 3좌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선원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모란병풍 1좌는 여닫이 창으로 바꿔 그 위에 모란도를 붙였으며, 좌우에 있던 모란병풍 2좌는 틀을 제거해 벽에 붙이도록 했다는 기록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란도의 장황 형태를 바꾼 이유는 수월하게 모란도를 점검하기 위해서이며, 동시에 열면 문이 되고 닫으면 병풍으로 보일 수 있는 효과를 노린 것이었다.

그렇다면 18세기 당시 선원전에 설치된 모란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선 놀라운 점은 영조가 선원전을 수리하면서 경자년 통신사가 가져 온 《사자獅子·모란牡丹》을 선원전에 설치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이다. 영조가 《사자·모란》을 선원전에 설치하려고 했던 이유는 인원왕후仁元王后(1687-1757)가 바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며, 실제로도 영조는 선원전 조성과 수리 등에 관한 모든 일을 인원왕후의 허락을 받고 진행하였다. 그러나 장인이 《사자·모란》을 배접하는 과정에서 연접을 잘못하여 끝내 선원전에 설치되지 못했고, 대신 현재 신선원전에 남아 있는 모란도와 같이 중축선에 수직으로 길게 뻗은 모란도가 설치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정조가 선원전에 영조의 어진을 모시기 위해 신실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1실(숙종 어진 봉안)과 같은 모란도를 그려 설치하라고 명했기 때문이다.

한편 19세기 선원전에 설치되었다고 추정되는 모란도는 총 3점이 남아 있어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M96), 아모레퍼시픽미술관 소장품, 독일 위버제브레멘박물관 소장품이다. 이들은 바람에 흩날리는 모란과 그렇지 않은 모란이 한 쌍을 이루고 있어 동일한 화본을 보고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모란도 장자>(M96)(그림)는 경복궁 선원전에 설치된 것이며, 1867년 전후에 제작된 작품으로 추측하였다. 이유는 첫째, 보존처리 과정에서 작품 배접지 뒷면에 석간주를 칠한 나무 기둥과 틀 흔적을 발견할 수 있어서 전각에 붙였던 그림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화면 크기가 세로 240㎝, 가로 54.4~55㎝로, 현재 신선원전에 설치된 모란도와 유사한 크기이기 때문이다. 둘째, 이 그림은 2폭으로 되어 있고, 남색 견직물로 장황되었는데, 선원전에 모란도가 2폭으로 설치된 예는 창덕궁과 경복궁 선원전 협실뿐이며, 남색 견직물로 장황된 것은 경복궁 선원전뿐이기 때문이다. 셋째, 1900년도 태조 어진을 추가로 봉안하기 위해 행해진 경복궁 선원전 증축에 관한 기록을 보면, 경복궁 선원전 동·서 협실에 설치된 <모란도> 그림을 모두 교체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즉 경복궁 선원전 동협실은 장황만 수리하였으며, 서협실은 그림과 장황 모두 그대로 두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작가모름, <모란도>, 조선 1867, 비단에 색, 화면 각 240×54.5cm, 국립중앙박물관(M96)

19세기 선원전에 설치된 모란도는 두 가지 도상적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바람에 흩날리는 도상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현전하는 다른 모란도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이다. 본고에서는 이 바람을 동풍東風이라 불리는 봄철 동쪽에서 부는 상서로운 바람으로 추정했는데, 동풍을 맞으면 식물들이 소생하고 생명의 시작을 알린다고 한다. 신기하게도 19세기 선원전에 설치된 바람에 흩날리는 모란은 모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는 모습을 표현했다. 만약 선원전 북쪽에 이 작품들이 설치되었다고 가정한다면 동쪽에서 부는 바람을 맞고 있는 모습인 것이다.

또한 19세기 선원전에 설치된 모란도의 두 번째 특징은 바람을 맞아 흩날리는 모란과 그렇지 않은 모란이 조합을 이룬다는 점이다. 이러한 형식은 중국 송대 비릉화파毗陵 派가 연지도蓮池圖를 그리는 방식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비릉화파가 연지도를 표현하는 방식을 보면, 바람 불 때 모양(風)과 맑게 갠 날의 모양(晴), 시든 모양(老)과 잎이 생생한 모양(嫩)의 4경을 함께 그렸다. 이는 風과 晴, 老와 嫩이 서로 대비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 중 風과 晴만으로 구성되기도 하였는데, 남송 비릉화파의 연지도 대련과 이에 영향을 받은 명대明代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風과 晴의 <모란도> 대련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모란도>(M96)도 이러한 영향을 받았다고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선원전에 모란도를 왜 설치했는지를 살폈다. 연구자는 그 이유를 '백옥루의 꽃구경' 일화와 관련 있다고 추정하였다. 백옥루白玉樓는 옥황상제가 머무는 백옥경에 세워진 누각인데, 백옥루 일화는 북송 영종寧宗(재위 1063-1067) 시기 처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선왕先王인 인종이 승하하자 술사가 나타나 인종을 다시 살려낼 수 있다고 말하였지만, 끝내 술사는 인종을 다시 살려내지 못했다. 술사는 영종에게 인종을 살려내지 못한 이유를 인종이 태종과 함께 백옥루에서 모란을 구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같은 해 영종은 효엄전孝嚴殿에 인종의 초상을 봉안하고 화가들에게 병풍과 장벽의 그림을 그리게 했는데, 역원길易元吉(?~?)은 효엄전의 재전齋殿인 영리전迎釐殿 어의御扆 중간 폭에 괴석 모란과 비둘기를 그리고 양 폭에 공작을 그렸다고 한다. 즉 진전 병풍에 모란 모티프가 포함된 병풍 그림이 그려진 것이다.

연구자는 이런 백옥루의 꽃구경 일화는 조선시대 왕과 왕후, 왕세자 등이 죽은 뒤 선계로 간다는 관념하에 일찍부터 언급된 것을 각종 문헌사료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가령 세종의 죽음에 승려가 나타나 세종을 다시 살려 보겠다는 일화나 정희왕후貞熹王后의 제문祭文과 중종中宗의 애책문哀冊文, 영조가 선의왕후宣懿王后를 부묘 廟한 뒤 내린 교서 등에서도 백옥루의 꽃구경 일화가 등장한다. 따라서 '백옥루의 꽃구경'은 혈연관계에 기반하여 부모와 자식, 더 나아가 선조와의 관계까지 확장된 관념으로, 선왕이 선조들과 함께 백옥루에서 꽃구경한다는 개념이다. 따라서 왕실의 각종 행사에 설치된 모란도가 선계의 꽃으로서 행사 장소를 선계의 이상세계로 치환하는 역할을 한 것처럼 길례와 흉례에 설치된 모란도도 선왕을 포함한 선조들이 선계에 있는 백옥루 주변 모란꽃을 감상하는 모습을 상징한 것으로 짐작된다.

2024 박물관강좌 하반기 모집 안내

테마강좌2 유럽의 박물관 미술관 산책 2

강사: 이현(미술사연구소)
일정: 9월~12월, 매주 화요일 10시~12시
수강료: 일반회원 기준 35만원

미술관은 한 나라의 문화 척도이자 하나의 소우주로 그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대변한다. 유럽 각국의 주요 미술관 역사와 소장품, 최근 전시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폭넓게 이해하도록 하며, 스페인 마드리드의 박물관 미술관의 세부적인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테마강좌4 예술, 역사를 만들다 2

강사: 전원경(세종사이버대)
일정: 9월~12월, 매주 목요일 10시~12시
수강료: 일반회원 기준 31만원

군주, 교황, 귀족이 지배하던 근대 이전의 서양 사회는 프랑스 대혁명을 분기점으로 부르주아계급의 사회로 탈바꿈한다. 근대와 현대의 역사적 전환에서 예술과 예술가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역사의 변화와 함께 살펴본다.

특강2 미국미술사: 유럽미술의 변방에서 세계미술의 향도로

강사: 조주연(서울대) 외 2명
일정: 5월 22일~7월 3일, 매주 수요일 14시~16시
수강료: 일반회원 기준 32만원

유럽 중심의 서양사, 서양미술사에서 벗어나 미국 미술을 매개로 '문화 없는 나라'에서 고유의 문화와 정체성을 확립하고 세계문화의 중심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살펴본다.

특강3 렉처콘서트: 그리스가 로마에게

해설: 강남길(배우) / 연주: (사)서울오케스트라
일정: 6월 8일~29일, 매주 토요일 14시~16시
수강료: 12만원

고대 그리스 로마의 신화와 문화 속 신들과 영웅의 이야기를 배우 강남길과 서울오케스트라가 들려주는 고품격 인문학 콘서트. 국립중앙박물관회와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특강4 아시아 해항도시기행

강사: 박진한(인천대) 외 3명
일정: 8월 21일~10월 23일, 매주 수요일 14시~16시
수강료: 추후공지

한국과 중국, 일본 및 동남아시아의 근대 해항 도시들의 발전 역사와 주요 문화에 대해 알아본다. 여행하듯 각 도시들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보고, 이것이 바다를 통한 아시아 국가들 간, 그리고 서구세계와의 연결과 교류를 바탕으로 형성된 것임을 이해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췄다.

신청 및 문의

- 국립중앙박물관회 사무국 전화접수(02-2077-9790~2, 9798)

2024 정기답사 일정

482회	5월 17일(금)	충북 괴산	우암 송시열 유적지, 각연사
483회	6월 14일(금)	경북 예천	용문사, 초간정, 금당실마을
484회	9월 20일(금)	강원 홍천	물걸리사지, 수타사, 괘석리사 사자삼층석탑 등
485회	10월 18일(금)	전북 완주	송광사 위봉산성, 화암사 등
486회	11월 15일(금)	충북 충주	충주고구려비 전시관, 창동리 마애불, 미륵대원지 등
487회	12월 20일(금)	충남 공주	국립공주박물관, 공산성, 마곡사

모집대상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원(2024 박물관강좌 수강생 등)

신청접수 매월 첫째주, 국립중앙박물관회 홈페이지 신청(www.fnmk.org)
* 답사일정과 신청접수 일정은 박물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기답사 답사기 공모

우리 회지 박물관사람들 에 실릴 정기답사 답사기, 답사 소감문을 공모합니다
이번 답사기 공모는 6월 경북 예천 정기답사 참여 회원분들과 5~6월 국외답사(네덜란드, 벨기에)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공모안내

대상 답사지: 2024년 6월 경북 예천, 5~6월 국외답사(네덜란드, 벨기에)
응모 자격: 2024년 6월 국내정기답사, 상반기 국외답사 참여회원
응모 원고: 답사기, 답사 소감문
접수 기간: 답사 진행 후 추후 공지
제출 방법: 전자우편(ohn@fnmk.org)로 접수

참고사항

*답사기는 원고 선정 과정을 거친 후, 회지『박물관 사람들』, 박물관회 블로그 등에 개제됩니다.
*필요한 경우 내용 및 분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박물관회 홈페이지(www.fnmk.org) '새 소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회는 1974년 9월 9일 발족하여 1981년 3월 7일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홍종인 초대 회장을 비롯하여 김일환, 이대원, 김상만, 김성진, 정진숙, 김영수, 유상옥, 유창종, 김정태, 신성수, 윤재륜 회장을 거쳐 2023년 11월 박은관 회장이 취임했다.

회장	박은관
부회장	윤석민 허용수
당연직	윤성용
이사	김석수 김신한 김현전 남수정 박선정 박진원 우찬규 유승희 정용진 조현상 최두준 홍정욱 봉욱
감사	김교태 김재훈
사무국장	이재범

회원은 현재 5,000여명으로 일반, 특별, 기부회원이 있으며,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이나 자료를 기증한 분도 평가 및 심의를 거쳐 기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부회원은 백두 백억 원, 청룡 오십억 원, 백호 삼십억 원, 주작 십억 원, 현무 오억 원, 천마 일억 원, 금관 오천만 원, 은관 삼천만 원, 청자 일천만 원, 백자 오백만 원, 수정 이백만 원 이상으로 한다.

백호회원
삼성전자

주작회원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윤광자 국립중앙박물관회

현무회원
박은관 (주)시몬느
신성수 고려산업(주)

천마회원
김교태 삼정회계법인
김남연 ㈜동훈
김석수 동서식품(주)
김신한 ㈜에이원
김익환 한세실업(주)
김현전 히든베이호텔
남수정 ㈜썬앳푸드
박진원 두산밥캣
배동현 창성그룹
손창근 소장가
송병준 (주)컴투스/ 컴투스홀딩스/ 위지윅스튜디오
송치형 두나무
신헌철 SK에너지
윤 관 BRV Capital Management
윤석민 태영그룹
윤장섭 전 성보문화재단
윤재륜 성보문화재단
이옥경 서울옥션
이우성 SGC에너지(주)
이주성 세아제강
장선하 (주)교원인베스트
전재범 금강공업(주)
정용진 신세계그룹
조영준 우양산업개발(주)
조현상 효성그룹
차가원 (주)피아크건설
천신일 세중문화재단
최두준 (주)동남유화
최태원 (주)SK
허용수 GS에너지
허윤수 (주)ALTO
허윤홍 GS건설
홍석조 (주)BGF그룹
홍정욱 (주)올가니카

금관회원
강덕수 前(주)STX그룹
경원스님 극락사
권준일
구재선 Actium그룹
권지혜 아이에스지주
권택환 신대양제지(주)
김대환 (주)슈페리어
김만옥 박물관회 회원
김승겸 서룡지주(주)
김재훈 영풍제약
김지연 (주)컨셉
김지원 한세엠케이(주)
도형태 갤러리현대
류지훈 SB investment
박경진 (주)진주햄
박병업 팬택씨앤아이
박선정 대선제분(주)
박선주 영은미술관
박영주 (주)아성
박용윤 前동아일보 기자
백진우 (주)동성케미컬
성래은 (주)영원무역홀딩스
송영숙 한미약품
양홍석 대신증권(주)
우찬규 학고재
유상옥 코리아나화장품
유승희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이교상 서울가든호텔
이규식 경신금속(주)
이명희 일우재단
이수경 삼보모터스그룹
이정용 가나아트갤러리
이주한 (주)삼익유니버스
이택경 MashupAngels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장인우 선인자동차/고진모터스
정명훈 前서울시향
정재봉 사우스케이프
최웅선 (주)인팩
최정훈 (주)이도/한강에셋자산운용(주)
최철원 Might&Main(주)
한혜주 진양자산관리주식회사
홍정혁 BGF에코머티리얼즈
홍진기 마리오아울렛

은관회원
강승모 KP그룹
강원기 (주)오리온베트남법인
구동희 LS MnM
구본혁 예스코홀딩스
권재현 반도건설
김민수 (주)삼익악기 스페코
김영명 (재)예올
김영희 박물관회 회원
김은혜 지알엠주식화사
김종한 종합전기(주)
김지태 태아산업
김태훈 두원중공업
남태훈 국제약품
민준기 덴톤스리/(주)민병철교육그룹
류방희 (주)풍산건설
마크테토 TCK Investment Management
박영정 V&S 자산운용
박주원 (주)시몬느/시몬느FC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서재량 前박물관회 부회장

성필호	광성기업
송 철	성문출판사
신병찬	前박물관회 사무국장
심종현	한국가구박물관
유진현	(주)제이에스파트너스개발
유창종	유금와당박물관
윤현경	동화약품
이상재	(주)삼화택시
이우일	(주)유니드
이우현	OCI
임지선	보해양조(주)
장승준	매일경제
정은미	블룸앤코
주신홍	(주)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
최성환	SK네트웍스
한석현	SM엔터테인먼트
함영준	(주)오뚜기
현지호	(주)화승코퍼레이션
홍정도	중앙그룹
홍정인	메가박스중앙(주)
황정환	(주)케이지에프

청자회원

강석훈	에이블리 코퍼레이션
강호철	대교홀딩스
고기영	(주)금비
곽정현	KG모빌리티
구본권	LS MnM
구본상	LIG
구본욱	(주)LK
구용수	닥터구의원
구원경	예스코홀딩스
구원희	한성플랜지
구은성	LS네트웍스
구형모	LX MDI
국현영	세기상사(주)
김건호	(주)휴비스
김경영	박물관회 회원
김경희	(주)피어나조경
김근호	박물관회 회원
김낙승	PWC삼일회계법인
김동관	한화그룹
김동선	한화 갤러리아/ 호텔&리조트/로보틱스/건설
김동준	키움인베스트먼트
김동철	(주)서브원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김미원	박물관회 회원
김상윤	유리자산운용
김서준	㈜해시드벤처스
김석현	성신양회(주)
김성남	한영회계법인
김성완	스무디킹
김세연	前국회의원
김연규	ENK Food Group
김영무	김앤장법률사무소
김영수	한국청소년연구소
김영자	(재)예올
김영혜	제일화재
김유석	(주)행남
김윤수	지리산문학관
김인순	한익환서울아트박물관
김재열	삼성경제연구소
김종학	서양화가
김주원	(주)서라벌
김태현	성신양회(주)
김택진	(주)엔씨소프트
김현강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남재욱	(주)인젠트
노 석	석플란트치과병원
노재연	오로라월드
담서원	오리온
류중희	(주)퓨처플레이
류철호	前한국도로공사 대표
문수희	박물관회 회원
문윤회	컨티뉴엄
민경남	박물관회 회원
민병철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박범준	(주)에이치케이디 코리아
박선경	前용인대학교 총장
박성재	성호전자
박세창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재상	방송인
박재연	성곡미술관
박재영	㈜두리/ ㈜그린스톤
박정빈	(주)신원
박정원	박물관회 회원
박준영	본음인베스트먼트
박해춘	前국립연금관리공단 이사장
박향미	박물관회 회원
박혜성	(주)농심기획
방정오	TV조선
배용범	KKR Asia Limited
배윤식	(주)한국체인모터
봉 욱	김앤장법률사무소
서경선	(주)대명건설
서동임	박물관회 회원
설윤석	대한광통신
손원락	(주)경동인베스트
송재준	㈜컴투스/ ㈜크릿벤처스
승지수	동화기업
신연균	아름지기재단
신영무	법무법인 세종
신지연	JS갤러리
신창재	대산문화재단
신춘수	오디컴퍼니(주)
신혜수	디블록자산운용㈜/ 디블록그룹
양승화	(주)DSP홀딩스/ (주)두성테크
양인집	어니컴(주)
양태회	비상교육
어호선	VTI파트너스
오경희	박물관회 회원
오승민	동일산업(주)
오치훈	대한제강(주)
유동현	(주)인성
유영지	유금와당박물관
윤보현	성보문화재단
윤승현	(주)뉴라이트전자
윤일영	영안(주)
윤정선	(주)성보화학
이 혁	박물관회 회원
이갑재	삼일회계법인
이규호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이기웅	열화당
이만규	에머슨퍼시픽
이미숙	박물관회 회원
이보람	㈜노루홀딩스
이선진	목금토갤러리
이승용	(주)에이티넘파트너스
이영순	한국미술협회 회원
이영자	박물관회 회원
이용균	알스퀘어
이용진	(주)경농
이운경	남양유업
이윤기	스위스그랜드호텔
이인수	수원대학교
이재욱	전남일보
이주엽	대륭종합건설
이준우	흥아해운
이지형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철우	前롯데쇼핑 총괄사장
이학준	크리스티코리아
이해진	NAVER
이혜숙	박물관회 회원
임채현	보해양조(주)
장동진	(주)파워맥스
장선익	동국제강(주)
장성진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
장우진	(주)대한다업
재단법인 양현	
전영이	박물관회 회원
전영채	(사)한길봉사회
전윤수	중국미술연구소
정영수	은산그룹
정영해	박물관회 회원
정의선	현대자동차
정재호	대호물산(주)
정지이	현대무벡스
정해인	박물관회 회원
조동길	한솔문화재단
조병순	성암고서박물관
조연주	한솔케미칼
조영미	경동소재
조재현	방송인
조희경	(주)화요
진재욱	하나유비에스
차원희	차병원그룹
천석규	천일식품(주)
최선묵	조광건업(주)
최세훈	(주)카카오
최원영	L Catterton
최원준	카이로스 인베스트먼트/한영알코비스
최인선	박물관회 회원
최재원	SK(주)
최창화	박물관회 회원
최혜옥	박물관회 회원
최훈학	(주)한국가구
한봉주	박물관회 회원
한승희	중앙에너비스
한영재	노루홀딩스
허정석	일진홀딩스(주)
허진수	파리크라상
허치홍	GS리테일
현명관	박물관회 회원
호종일	호성흥업
호창성	(주)더벤처스
홍범석	백미당
홍석표	고려제강
홍성표	고려상사(주)
홍원복	박물관회 회원
홍인관	IKE Investment
홍정국	(주)BGF
홍진석	남양유업(주)
황인규	CNCITY에너지(주)

백자회원

고석명	(주)크린텍
김용남	박물관회 회원
김혜련	조각가
류헌진	(주)코한인터네셔널
박영규	용인대 명예교수
박종화	박물관회 회원
백의현	박물관회 회원
성순현	박물관회 회원
오승희	박물관회 회원
이건무	前국립중앙박물관 관장
이경희	수필가
이영훈	前국립중앙박물관 관장
이은자	박물관회 회원
이흥표	前박물관회 부장
정숙희	박물관회 회원
정청자	이화여대
조기훈	박물관회 회원
조현지	박물관회 회원
지건길	前국립중앙박물관 관장
최경자	박물관회 회원
최두남	서울대학교
최연석	MBK파트너스
한재경	박물관회 회원
황혜영	박물관회 회원

수정회원

강문석	박물관회 회원
고영애	박물관회 회원
권오경	전원건축
김경섭	충북대학교 교수
김경희	박물관회 회원
김성구	前국립경주박물관 관장
김성구	(주)샘터사
김성진	박물관회 회원
김소원	변호사
김수연	박물관회 회원
김수정	UBS은행서울지점
김영나	前국립중앙박물관 관장
김유진	박물관회 회원
김윤옥	前대통령 영부인
김은희	박물관회 회원
김의형	前한국회계기준원 원장
김재홍	국민대학교 교수
김정옥	박물관회 회원
김창년	박물관회 회원
김혜경	박물관회 회원
문명재	박물관회 회원
박승준	박물관회 회원
배기동	前국립중앙박물관 관장
배병률	박물관회 회원
배윤경	박물관회 회원
배재호	용인대학교 교수
변인숙	박물관회 회원
사경복	박물관회 회원
서성숙	박물관회 회원
설영기	대한여행사
성낙준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송인숙	박물관회 회원
신경은	박물관회 회원
신광섭	前국립민속박물관 관장
신용극	유로통상주식회사
신용욱	(주)유로커뮤니케이션
안상운	변호사
안휘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양재국	박물관회 회원
연정애	박물관회 회원
염혜옥	박물관회 회원
오경자	박물관회 회원
오근정	박물관회 회원
오지철	하트-하트재단
우계숙	박물관회 회원
유영주	박물관회 회원
유희숙	박물관회 회원
윤여경	박물관회 회원
윤태숙	박물관회 회원
윤한영	박물관회 회원
이경은	박물관회 회원
이상기	박물관회 회원
이선희	박물관회 회원
이성민	박물관회 회원
이시영	대한관광여행사
이윤재	박물관회 회원
이윤환	(주)홀리데이 여행사
이은영	박물관회 회원
이은형	하나금융그룹
이인범	아세아제지
이종미	박물관회 회원
이종철	교토조형예술대학 교수
이한영	박물관회 회원
이지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임혜선	박물관회 회원
장성택	동진실업
장세희	(주)SAC
장순애	박물관회 회원
정건해	한영회계법인
정민자	박물관회 회원
정서원	농협중앙회
정서해	박물관회 회원
정양모	前국립중앙박물관 관장
정연중	한의사
정영돈	(주)프라임메탈
정영현	(주)천마
정운남	정운남 치과
정은경	교사
조동복	박물관회 회원
조인수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차인환	박물관회 회원
최광식	前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봉순	박물관회 회원
최재영	박물관회 회원
최홍섭	인하대학교 교수
허인효	박물관회 회원
홍승길	박물관회 회원
홍윤희	연세대학교 강사
홍철환	박물관회 회원
황규희	박물관회 회원
황정숙	박물관회 회원
황충자	박물관회 회원

ISSN 1599-7863

국립중앙박물관회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04383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회 137 Seobinggo-ro, Yongsan-gu, Seoul, 04383, Korea
전화 (02) 2077- 9790 전자우편 fnmk1974@fnmk.org 홈페이지 www. fnmk.org